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해녀의 구술자료를 통해 본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의미

장 재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2023년 8월



제주 해녀의 구술자료를 통해 본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의미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장 재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지도교수 허 남 춘

장재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고 성 만



위 원

김 문 공



위 원

최 남 춘



Significance of *Halmang Badang* and *Halmangjang*  
Examined through Oral Testimonies of  
Jeju Haenyeo

Jae Hui Jang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oo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b>I. 서론</b> .....	1
1.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방법 .....	7
1) 구술사 연구방법론 .....	7
2) 구술생애사 연구 .....	9
4. 연구범위와 한계 .....	11
<b>II. 자료개관</b> .....	13
1. 조사방법과 대상 .....	13
1) 기록자료의 수집과 분석 .....	13
2) 조사 대상 .....	14
2. 조사현황 .....	16
1) 구술자 조사 .....	16
2) 관련자 조사 .....	18
3) 장소 조사 .....	19
(1) 할망바당 어장구역 .....	20
(2) 할망장 .....	23
<b>III. 경험과 기억에 나타난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b> .....	26
1. 할망바당, 배려와 나눔의 공간 .....	26
1) 바다와 해녀공동체 .....	26
(1) ‘우리 바다’ : 바다밭과 해녀회 .....	26
(2) 수직과 수평 사회 : 신입과 노년의 해녀 .....	28
2) 제주 해녀 :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	32

(1) 나눔의 문화 : 여러바당과 계석 .....	33
(2) 불턱과 공동체정신 .....	38
2. 할망장, 노동과 삶의 공간 .....	42
1) 할망장의 현대화 .....	42
2) 노동공간 ‘시장’의 형성 .....	48
3) 제주 공동체의 일상 공간에서의 노동 .....	54
<b>IV. 할망바당과 할망장이 가지는 현대적 가치의 의미 .....</b>	<b>58</b>
1.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자기 주도성 .....	58
2. 지역사회의 공존과 공생 .....	63
<b>V. 결론 .....</b>	<b>69</b>
<b>참고문헌 .....</b>	<b>71</b>
<b>Abstract .....</b>	<b>76</b>

<표 차례>

<표 I-1> 구술기록의 분류 ..... 8  
<표 II-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별 구성비 ..... 25  
<표 III-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연혁 ..... 44  
<표 III-2> 제주시와 문경읍의 할망장 비교 ..... 47  
<표 IV-1> 고령화의 진행 과정 ..... 59

<그림 차례>

<그림 II-1> 구술 인터뷰 조사지역 ..... 14  
<그림 II-2> 한경면 고산리 어장구역도 ..... 20  
<그림 II-3>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어장구역도 ..... 20  
<그림 II-4> 한경면 고산리 할망바당 조업 구역 ..... 20  
<그림 II-5> 서귀포시 보목동 어장구역도 ..... 21  
<그림 II-6> 서귀포시 보목동 서부 할망바당 조업 구역 ..... 22  
<그림 II-7> 성산읍 온평리 어장구역도 ..... 22  
<그림 II-8> 성산읍 온평리 학교바당 조업 구역 ..... 23  
<그림 II-9>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위치도 ..... 24  
<그림 II-10>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 범례 ..... 25  
<그림 IV-11>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공동체 양상 ..... 66

<사진 차례>

<사진 II-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 입구 ..... 24  
<사진 II-2>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의 전경 ..... 24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 지역의 바다와 전통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온 제주 해녀와 할망장의 제주 노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술 인터뷰를 채록하고 이를 정리하여 생애사적 연구를 하였다. 제주 할망의 생애담을 통해 ‘할망바당’과 ‘할망장’에 나타난 노동경험과 생활사적 의미를 분석하였고, 그 속에 나타난 공동체적 양상과 의미, 그 현대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2023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제주도를 동서남북 네 장소로 나누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제주시 고산리, 서귀포시 보목동, 서귀포시 온평리 지역에서 7명의 해녀 할망들의 생애사를 구술 채집하였다.

할망바당이라는 공간에서는 제주 해녀의 노동경험과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조사하였고, 할망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제주 할망 상인을 만나 노동과 생활경험과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계석, 반태우기, 수눌음과 같은 제주 고유의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바다에서는 할망바당이라는 공간으로 나타났고 육지에서는 할망장이라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제주 할망바당과 할망장은 수동적으로 소비와 복지의 대상자가 되기 쉬운 노인들이 생산과 판매의 노동을 하며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곳으로, 제주의 전통 문화유산이 현대적으로 이어져 형성된 공동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해녀들이 바다밭이라고 인식하는 바다라는 공간에서 물질 작업이 쉬운 가까운 바다를 할망바당으로 지정해 약자를 배려하는 제주 해녀의 독특한 문화는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수평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왔다. 할망장은 제주 여성들이 우영팓이라는 집밭에서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초고령화사회를 앞둔 한국 사회의 다른 집단들처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해녀 공동체는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주체적으로 바다밭을 가꾸며 할망바당을 통해 공동체의 약속을 지켜간다. 할망장에서는 농업의 현대화로 사라지는 토종종자 농작물을 판매하고 전통생태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바다와 전통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고령자들은 고립되고 소외된 노인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은 소비자 및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서의 역할만이 주어지기 쉽다. 할망바당과 할망장은 노인들에게 생산과 판매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강한 제주 여성상 그대로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주 할망바당과 할망장은 현대 사회에 대와 대를 이으며 선순환하는 공동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제주 지역 사회는 전통문화유산을 이어받아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다.

주제어 : 제주해녀, 해녀공동체, 할망바당, 할망장, 구술기록,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통시장, 전통문화유산, 초고령사회

# I. 서론

## 1. 연구목적

이 논문은 제주 지역의 바다와 전통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온 제주 해녀와 할망장의 노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술 인터뷰를 채록하고 이를 정리하여 생애사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제주 할망의 생애담을 통해 ‘할망바당’과 ‘할망장’에 나타난 노동경험과 생활사적 의미를 분석한 뒤 그 속에 나타난 공동체적 양상과 의미, 그 현대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한국의 본토와 바다를 두고 남쪽으로 약 140킬로미터 떨어진 변방의 ‘섬(島)’이다. 섬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육지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는 자급자족 생활하기가 힘들었다.<sup>1)</sup>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제주인 누구나 생활하기가 어려웠지만 특히 여성, 제주 할망들의 삶은 고단했다. 이에 독특한 생활공간과 삶의 양식을 구축해왔다. 이는 제주의 지리적·문화적 위치와 함께 독특한 제주 여성상과 여성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생활 터전인 산과 들과 바다 모두를 분주하게 오가며 살아야 했던 제주인들은 물때(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일 년을 주기로 하는 독특한 생활주기를 만들었다. 농한기에도 제주인, 특히 제주 여성은 쉬지 않았다.<sup>2)</sup>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업활동을 하며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남성과 더불어 사회경제와 가정경제에서의 주체성을 가졌다.

제주인들에게 밭은 땅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마을의 앞바다 역시 밭이라 칭한다.<sup>3)</sup> 제주 해녀들은 육지에서 농사일을 하는 밭과 구분하여 바다를 ‘바다밭’으로 인식하는데, 바다에 대해 물질이라는 생업을 하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우리바당’이라 부르며 강력한 애착과 권리의식을 보여준다.<sup>4)</sup>

1)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제주해녀 공동체를 잇보다 :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8, 24쪽.

2)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파투스, 1998, 148쪽.

3) 허남춘, 「제주전통음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탐라문화』, 26, 2005, 4쪽.

제주 여성에게 육지와 바다의 밭 모두 중요한 생업공간이자 생활영역이 된다. 바다밭에서 해녀들의 작업인 물질은 홀로 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임하고 생존의 위협에 대처한다. 해녀 공동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켜 내려온 작업 과정에서의 윤리를 중시하였고, 해산물을 따는 시기, 양 등을 공동체가 조절하고 자원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채집 작업을 이어왔다.

제주 해녀 문화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공동체이다. 물질 작업의 본질은 협동을 전제로 작업을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신뢰와 배려에 있다. 해녀에게 동료는 경쟁자이면서도 언제 생길지 모르는 바다 물질 작업 전후의 위험 상황에 대해 상호 예방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제주 해녀는 현대화라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지금까지 공동체 정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제주 해녀 규모인 여성 중심의 해양문화 공동체를 찾기가 어렵다.<sup>5)</sup> 제주 해녀 공동체에서 물질 작업을 하며 불을 쬐던 ‘불턱’은 소통의 장이면서, 해산물을 많이 채취한 상군 해녀가 그렇지 못한 하군 해녀에게 자신의 해산물을 나누어주는 ‘계석’이라는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해녀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불턱은 단순히 고된 물질 작업의 시작과 끝, 휴식의 공간을 넘어 공동체를 잉태하고 키우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문명사, 해양문화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해녀 공동체는 위계가 아닌 평등이 강조되는 자발적 규제를 선택하였음<sup>6)</sup>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려의 가치는 할망바당으로 이어지고 육지에서는 다시 할망장이라는 공간에서 그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와 생태적 지식과 더불어 협동, 배려와 신뢰로 지금까지 공동체를 지속해온 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면서 사람 유산(Human Heritage)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 해녀는 2015년 12월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제주해녀문화), 2017년 5월 국가무형문화재(해녀)로 지정되었다.<sup>7)</sup>

4) 안미정,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제주도 잠수마을의 나잠(裸潛)과의례」, 2006, 한국문화인류학, 39(2); 강대훈, 「“곱게 갇서, 다시 오지 맙서”: 제주 성산읍 해녀들의 바다거북 인식과 무속적 조상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 석사학위논문, 2017.

5)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앞의 책, 2018, 25쪽

6) 양인실, 「제주해녀 생애사 연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장(장)’ 개념을 적용하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18쪽.

연일 뉴스에서 환경과 기후 위기가 보도되는 21세기에 해녀는 공동체적이고 생태학적인 세계관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며, 또 협동과 질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이 있는 해녀 공동체의 양상은 지방소멸이 문제시되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21세기 한국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준다. 필자가 무엇보다 할망바당과 할망장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 노년 여성들, 할망들은 불가피한 생존전략으로 농사일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친족과 마을의 경조사 일까지 다 해내며 억척스럽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해녀인 경우,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억센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 생산활동에 참여하였기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제주 해녀는 제주 여성 사회 속에서도 대규모로 조직화된 대표적인 여성 조직의 하나로 발전해왔다. 해녀 공동체는 단순한 사회조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을 제공하는 공동체이기도 한다.<sup>8)</sup>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 현대적 가치와 의의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먼저, 현재까지 제주 지역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역사, 지리, 문화, 관광, 의학, 문학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왔으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이한 관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한계가 있다.

흔히 해녀(海女)라고 알려진, 제주에서는 잠녀(潛女), 잠수(潛嫂)라고 부르는 나잠어로자(裸潛漁撈者)는 해안의 수중에서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들이다.<sup>9)</sup> 해녀에 대한 시선은 사회상과 시대상을 반영하며 계속해서 달라져 왔고 연구 관점 역시 이에 맞춰 변화해왔다.<sup>10)</sup> 마찬가지로 해녀 공동체 역시 불변의

7) 고미, 「제주해녀 출가(出稼)배경과 정착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3, 1쪽.

8) 고승환, 「제주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변화」, 『제주발전연구』, 8, 2004, 186쪽.

9)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75쪽.

10) 송원섭, 조철기, 안중수, 이중호, 「‘해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9(1), 2023, 91쪽.

형태가 아닌 다양하게 변화해온 역사적 형성물이다.<sup>11)</sup> 제주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해녀들은 평범한 한 개인으로서, 전문 기술 직업인으로서, 또 마을 구성원으로서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왔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해녀 이미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왔으며, 제주 해녀들의 일상생활과 노동 특성, 공동체 양상도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였다.<sup>12)</sup>

현재 ‘해녀’와 ‘공동체’를 키워드로 선행연구를 조사해보면, 대략적으로 단행본 61권, 학위논문 41편, 학술지 논문 67편과 연구보고서 19건을 찾을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향토사나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해녀와 해녀 문화를 조사하기도 하고, 여성학적인 시각에서 해녀에 접근하거나 해양오염 같은 환경문제, 근현대 역사와 관련하여 분석하거나 해녀의 경제행위나 노동경험, 무형유산적 가치 또는 관광 콘텐츠로서의 개발방안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었다.

송원섭, 조철기, 안종수와 이종호가 2023년에 발표한 「‘해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녀의 연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전통적 생활 및 생계 양식’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해녀는 ‘경제 행위로 잠수 활동을 하는 여성’이나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무형유산’으로 조명을 받거나 반대로 전근대 봉건사회에서 수탈당한 집단이나 한국 사회의 발전과 근대 식민지 역사와 관련하여 마이너리티처럼 표상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21세기 기후 위기 속에서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해녀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요구되는 시대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sup>13)</sup>

해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우선 강대원(1973)의 『제주해녀』 연구가 향토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처음으로 해녀에 접근하였다. 해녀의 생애사를 인류학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유철인(1998)의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와 양원홍(1998)의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제주특별자치도(2014)가 조사한 『제주해녀 생애사 보고서: 숨비질 배왕 늬주지 아녀』 등이 있

11) 양인실, 앞의 논문, 2022, 19쪽.

12) 고승환, 앞의 논문, 2004, 187쪽.

13) 송원섭·조철기·안종수·이종호, 앞의 논문, 2023, 91쪽.

다.14) 생애사 연구방법론은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실증주의나 경험주의적 연구 전통으로부터 방법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시되기도 한다.15)

현재 제주 해녀 생애사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적인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이선화(2016)의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이한결(2017)의 「어느 해녀 할머니의 역경과 성장에 관한 생애 이야기」를 비롯해 양인실(2022)의 「제주해녀 생애사 연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장(場)' 개념을 적용하여」 등이 있다.

해녀의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16)

첫째, 해녀 공동체가 가진 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로 해녀 의례와 잠수 방식 등, 노동경험이나 향토사, 지리, 지역적인 측면 등을 다루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조성윤·이상철·하순애(2003)의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안미정(2007)의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윤수미(2011)의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 제주도 무무(巫舞) 비교 연구」 그리고 송원섭(2019)의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조우: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사례를 중심으로」, 문경복(2020)의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해녀 노동 연구」, 양경숙(2020)의 「제주해녀의 직업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강수경(2023)의 「제주도 바다밭 지식과 어로 민속 연구: 제주시 조천읍 사례를 중심으로」, 고미(2023)의 「제주해녀 출가(出稼) 배경과 정착 과정 연구」 등이 있다.

둘째, 해녀 문화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 보호와 공동체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이다. 무형문화유산, 기후 위기, 고령사회 등의 시대적 이슈에 따라 달라진 사회적 시선을 반영한 연구들로, 해녀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원 관리와 지속성에 관한 가치, 공동체와 자원 보존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강경민(2015)의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

14) 양인실, 앞의 논문, 2022, 19쪽.

15) 민성은·최성호·김영천,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 2017, 466쪽.

16) 송원섭·조철기·안종수·이종호, 앞의 논문, 2023, 91~92쪽. 이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필자가 해녀 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재정리하였다.

어장 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계 사례를 중심으로」, 안미정 (2006; 2007)의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제주도 잠수 마을의 나잠(裸潛)과 의례」 및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고은솔과 정상철(2018)의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그리고 노우정(2021)의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등이 있다.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을 비롯해 한국의 각 지역에서 해녀 테마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녀를 지역경제의 자본으로 본 정책 발굴과 수혜성 지원, 문화예술·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17)</sup> 근대 이후 해녀의 물질 작업은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인정받았는데<sup>18)</sup>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녀 공동체의 전통문화유산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어가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어서, 제주 오일장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한국수산지<sup>19)</sup>와 유태복(1998)<sup>20)</sup>, 김동섭<sup>21)</sup>, 허진<sup>22)</sup>의 연구 등이 있다. 한국수산지(1910)에서는 1910년경의 제주 오일장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sup>23)</sup> 유태복(1998)은 제주 전통시장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살펴보고 있으며, 김동섭(2005)은 세화리 오일장을 구술기록을 이용해 연구하고 있으며, 허진(2007)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의 업태별 공간구성과 규모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를 하고 있다.

닷새마다 열리는 오일장은 ‘닷새장’이라고도 불렸으며<sup>24)</sup>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빠르게 산업화 및 도시화가 되면

17) 고미, 앞의 논문, 2023, 1쪽.

18) 노우정,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1, 1쪽.

19) 조선총독부농상공부 편찬, 『제주도』, 「한국수산지」(3), 조선총독부, 융희4년(1910).

20) 유태복, 「濟州市 在來市場의 經營合理化 方案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1) 김동섭, 「세화리 오일장에 관한 연구」, 『영주어문』, 9, 2005.

22) 허진, 「在來市場의 業態別 空間構成과 規模에 관한 建築計劃的 研究」,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3) 조선총독부농상공부 편찬, 위의 책, 융희4년(1910), 392~393쪽(김동섭, 위의 논문, 2005, 82~83쪽에서 재인용).

24) 김동섭, 위의 논문, 2005, 81쪽.



서 오일장은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 시장에서 재래시장,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법적 명칭과 관련법을 바꾸며 제도적인 지원을 해왔다. 전통시장은 시장 고유의 소통과 교환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오락적인 기능 및 경제적인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sup>25)</sup>

제주의 전통시장 역시 역사적으로 근현대화 과정을 겪으며 계속해서 변모해왔으나 오일장은 여전히 제주 고유문화의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정부의 전통시장 정비사업 이후 시장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 효과는 높았으나 시장 활성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았는데, 물리적 환경 개선이 직접적으로 새로운 상권 형성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공공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sup>26)</sup>

주변환경의 변화에 맞춰 달라져 온 역사적 형성물인 해녀는 지금도 환경문제와 전통시장의 쇠퇴,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맞춰 적응하고 변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가 복지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체가 되는 신노년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는 제주의 해녀 할망들의 생애담을 분석하여 개인의 삶과 노동경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변화하고 공통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해녀의 무형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제주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구술사 연구방법론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다양한 사회·역사 연구 방식과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커진 20세기 중반부터 구술사 연구방법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 새로운 방

25) 정금호, 「농촌 오일장의 공간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 동부지역 오일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4), 2011, 149~150쪽.

26) 서수정·이창호·정종대·정경일, 「재래시장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모델개발」, 2006(정금호, 위의 논문, 2011, 150쪽에서 재인용).



법론으로 생산된 다양한 주제 영역의 구술기록은 1차 사료라는 가치로 인해 현재는 사회사, 민속사, 향토사, 노동사, 문화사, 여성사 등 여러 분야의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다.<sup>27)</sup> 한국의 구술사는 1980년대 말 사회적·정치적 운동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의 사회적 수단으로 시작하여 성장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라는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지역문화와 역사 연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28)</sup>

대략적으로 정의하자면, 구술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을 면담자와 구술자의 소통을 통하여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이며 이러한 방법론으로 얻은 기록을 구술기록이라 한다. 구술기록은 크게 두 가지 범주, 곧 ① 구전(oral tradition):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몇 세대에 걸쳐 구술적으로 전승되는 지식체계와 ② 구술사(oral history):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회고적 성격이 강한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술사는 다시 구술증언(oral testimony)과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로 세분할 수 있다.<sup>29)</sup>

생애사는 한 개인이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기록이다.<sup>30)</sup> 구술생애사는 이야기의 초점을 한 개인의 삶 전반에 맞춘 것이고, 구술증언은 특정 사건의 진행 과정, 성격이나 사건의 인과에 둔 것이다. 다만, 구술생애사와 구술증언의 수집이 항상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sup>31)</sup>

구술기록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 I -1>과 같다.

<표 I -1> 구술기록의 분류

	대범주	소범주	사례
구술기록	구전(oral tradition)		구비문학·신화 등
	구술사(oral history)	구술증언(oral testimony)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2010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정리

27)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010, 233~237쪽.

28) 윤택림, 「구술자료 생산 및 활용 현황과 구술사의 공공성(Publicness)」, 『구술사연구』, 14(1), 2023, 212쪽.

29) 조용성, 앞의 논문, 2010, 240쪽.

30)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13, 176쪽.

31) 조용성, 앞의 논문, 2010, 241쪽.

## 2) 구술생애사 연구

구술생애사는 구술사 연구와 생애사 연구가 공유하는 교집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윤택림(2013)에 따르면, 생애사는 개인적 서술로서 구술자의 개인 경험과 자신 및 타자들에 대한 개념을 그 주제로 하는 자기성찰적인 일인칭 서술이 된다. 생애사는 시간에 따른 구술자의 삶의 과정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구술자의 해석을 보여줄 수 있다.<sup>32)</sup>

생애사는 한 개인 스스로가 기록할 수 있으나, 구술생애사는 구술 채록자가 구술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를 문헌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구술생애사 연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 한 개인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구분해서 정리하자는 것이 아닌, 살아온 삶의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면서도 개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술자는 할망바당과 할망장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제주 노년 여성들이다. 할망들을 만나 전반적인 생애사를 기록하면서도, 제주 해녀 개인의 삶은 시대상과 사회·환경적 변화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sup>34)</sup> 이러한 맥락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구술기록은 할망바당과 할망장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가 동일함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였다.

생애사를 근거로 한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sup>35)</sup> 이러한 문제로 생애사 연구는 실증주의와 통계학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1950년대부터 밀려났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재조명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생애사 연구는 공식적인 역사 연구와 사회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된 평범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의 경험에 주목하는

32) 윤택림, 앞의 책, 2013, 175쪽.

33) 김기중, “‘구술생애사’ 알고 싶어요”, 서울신문, 2018.2.2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0025024>]

34) 고미, 앞의 논문, 2023, 9쪽.

35) 양인실, 앞의 논문, 2022, 4쪽.

연구방법으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다.<sup>36)</sup>

구술생애사에서 채록자의 역할은 중요한데, 구술된 이야기를 듣는 청자(聽者)인 동시에 편집된 구술생애사 텍스트의 화자(話者)이기 때문이다. 구술생애사에서 구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은 구술된 경험이 구술자의 전체 삶 속에서, 또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채록자가 보여줄 때이다.<sup>37)</sup>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이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기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시대적·공적인 맥락을 발견함으로써 그가 속한 사회 구성원 공통의 이야기가 되며, 이것을 통해 주관성을 넘어서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sup>38)</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자의 구술기록을 연대기적 시간으로 분석하는 대신에 물리적·문화적 공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할 것이다.<sup>39)</sup> 생애사 자료 분석의 틀로서 민성은과 최성호, 김영천(2017)<sup>40)</sup>은 여섯 가지 생애사 텍스트의 분석관점 및 전략들을 제시하는데 바로 다음과 같다.

- ① 연대기적 시간 순서로 분석하기
- ② 인간관계 형식 중심으로 분석하기
- ③ 물리적·문화적 공간 중심으로 분석하기
- ④ 가치관과 비전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 ⑤ 삶의 대응 방식 중심으로 분석하기
- ⑥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여섯 가지 방법 중에서 물리적·문화적 공간 중심으로 분석하기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공간과 문화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시공간적 배경 혹은 특정한 삶의 영역을 분석하려는 방법이다.<sup>41)</sup>

36) 양인실, 앞의 논문, 2022, 11~13쪽.

37) 유철인,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제주해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 『비교한국문화 인류학』, 44~42, 2011, 134~144쪽.

38) 김영천·이현철 편저, 『질적 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아카데미프레스, 2017, 231쪽(양인실, 앞의 논문, 2022, 11~13쪽 재인용).

39) 민성은·최성호·김영천, 앞의 논문, 2017, 482~492쪽.

40) 민성은·최성호·김영천, 앞의 논문, 2017.

41) 민성은·최성호·김영천, 앞의 논문, 2017, 485~486쪽.

필자는 직접 조사한 제주 해녀와 할망의 구술기록을 생애사 연구방법 중에서 물리적·문화적 공간 중심으로 분석하기 방법을 적용하여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공동체적 양상과 의의를 살펴보고 그 현대적 가치를 찾을 것이다.

#### 4. 연구범위와 한계

제주 지역의 해녀와 해녀 공동체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해녀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해녀 공동체의 특징적 양상들에 대한 연구는 최근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주 해녀 연구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해녀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게 선행되어 있어서 가능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필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해녀의 노동경험과 해녀 및 지역 공동체의 생활사적 측면을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주목하려고 한다.

다만, 제주 해녀와 공동체와 관련된 직간접적 사료나 문헌자료는 극히 적은 상황이므로 제주 해녀들이 자신의 삶과 해녀 공동체에 대해 증언하는 생애담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게다가 할망장과 관련하여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해녀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노년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할망장에 대해 증언하는 생애담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앞서 기존 생애 연구방법론을 검토하여 제시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제2장에서는 필자가 제주도를 동서남북 네 지역으로 구분해 조사한 제주 해녀와 할망의 구술 생애사 자료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녀들의 경험과 기억에 형성된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를 할망바당과 할망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연구해왔던 해녀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려 초고령사회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와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노령인구의 자립성과 주체성에 대한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필자는 제주 해녀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 자료에 바탕으로

해녀 할망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적, 현실적인 이유로 인터뷰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로 할망장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할망장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장’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자료를 찾고 전통시장이라는 현장 공간을 중심으로 제주도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을 넓혀 조사하였다.

셋째로 제주 할망의 생애담을 정리한 구술기록을 바탕으로 할망바당에서 나온 나눔과 배려의 문화에 대해 분석하고 할망장이 생긴 배경을 살펴보고 두 공간을 연결 짓고자 하였으나 할망장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그러한 시도가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 II. 자료개관

### 1. 조사방법과 대상

#### 1) 기록자료의 수집과 분석

할망바당과 할망장과 관련하여 연구 초기부터 자료의 수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제주 전 지역 마을과 해녀 공동체 등의 구술 인터뷰를 계획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다. 제주 해녀와 할망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보여주는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모든 유산을 기록자료로 판단하고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구술채록 등 모든 기록정보 자료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할망바당의 경우, 제주 해녀를 중심으로 해녀와 공동체와 관련된 각종 선행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의 문헌자료들을 기준으로 참고하였고, 할망장의 경우,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 논문과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타지역의 경우 할망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문경전통시장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의 준거를 적용하였다.

첫째로 생애사 연구를 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질적 연구 및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였고 지역은 제주도로 한정하였으나, 자료가 희소한 할망장의 경우 타지역의 할망장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문경읍 공무원과 구술 인터뷰하였다.

둘째로 제주 해녀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 인터뷰,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며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할망바당, 할망장, 공동체 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다. 다양한 선행연구 자료에 바탕을 두고 제주 해녀와 할망의 생애사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셋째로 연구 결과가 제주 해녀 구술자의 생애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문화적 맥락을 분석하여 현대 공동체적인 의미 제고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할망바당에 나타난 나눔과 배려의 문화에 대한 분석과 할망장이 생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두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다만, 할망장에 대한 문헌자료나 연구가 특히나 미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 2) 조사 대상

아래 <그림 II-1>은 필자가 시행한 구술 인터뷰 면담자의 거주지역 지도이다. 제주도를 동서남북 네 장소(A~D)로 나누어 인터뷰 지역을 선정하였다. 북쪽(A)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할망장을 기준으로 서쪽(B)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남쪽(C)은 서귀포시 보목동, 동쪽(D)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가 구술채집 지역에 해당된다. 생애사 인터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꾼인 구술자를 확보하는 일이다.<sup>42)</sup> 해당 지역의 구술자를 확보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II-1> 구술 인터뷰 조사지역

42) 윤택림, 앞의 책, 2013, 173쪽.

본 연구에서는 제주 노년 여성들의 노동경험과 할망바당과 할망장에 나타난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 해녀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의 할망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a 해녀의 생애담이다. 1951년생으로 현재 73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살고 있다. 고향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이다. 어머니와 언니 세 사람 모두가 해녀였다. 면담은 2023년 6월 3일 고산리 자택 마당에서 이뤄졌다. 면담자료는 인터뷰지 및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둘째, 강○○ 해녀의 생애담이다. 1943년생으로 현재 81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에 살고 있다. 고향은 서귀포시 보목동이다. 어머니도 해녀였다. 면담은 2023년 4월 11일(1차), 4월 30일(2차 물질 현지조사), 6월 13일(3차)에 이뤄졌다. 1차 및 3차 면담은 강○○ 해녀의 보목동 자택에서 2차 면담은 보목동 쉼섬 앞바다(서부 지역)에서 이뤄졌다. 면담자료는 인터뷰지 및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셋째, 현○○b 해녀의 생애담이다. 1958년생으로 현재 65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에 살고 있다. 고향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이다. 어머니도 해녀였다. 면담은 2023년 4월 11일(1차), 4월 30일(2차 물질 현지조사), 6월 13일(3차)에 이뤄졌다. 1차와 3차 면담은 현○○b 해녀의 보목동 자택에서 2차 면담은 보목동 쉼섬 앞바다(서부 지역)에서 이뤄졌다. 면담자료는 인터뷰지 및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넷째, 현○○c 해녀의 생애담이다. 1940년생으로 현재 84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살고 있다. 고향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다. 어머니도 해녀였다. 면담은 2023년 4월 25일 현○○c 해녀의 온평리 자택에서 이뤄졌다. 면담자료는 인터뷰지 및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한○○ 할망의 생애담이다. 1942년생으로 현재 82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동에 살고 있다. 고향은 제주시 도두동이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도두동으로 이전하기 전인 제주시 사라봉에 위치했을 때부터 할망장에서 장사를 해왔다. 면담은 2023년 4월 1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에서 이뤄졌다. 면담자료는 인터뷰지 및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강○○ 할망의 생애담이다. 1945년생 현재 79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에 살고 있다. 고향은 제주시 삼양동이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도두동으로 이전하기 전인 제주시 사라봉에 위치했을 때부터 할망장에서 장사를 해왔다. 면담은 2023년 4월 12일(1차), 6월 12일(2차)에 걸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에서 이뤄졌다. 면담자료는 인터뷰지 및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일곱째, 김○○ 할망의 생애담이다. 1946년생으로 현재 78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살고 있다. 고향은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이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도두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할망장에서 장사를 해왔다. 면담은 2023년 6월 1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에서 이뤄졌다. 면담자료는 인터뷰지 및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 2. 조사 현황

### 1) 구술자 조사

필자가 할망바당과 할망장과 관련하여 제주 노년 여성들의 생애담을 조사한 과정과 이들의 생애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현○○a 해녀(73세)

<b>조사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담 일시:</b> 2023년 6월 3일 오후 13시</li> <li>▪ <b>면담 장소:</b> 현○○a 해녀 자택 마당</li> </ul>
<b>생애사</b>	<p>1951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생</p> <p>1966년 22세에 결혼(자녀는 1남4녀)</p> <p>1985년 본격적인 물질 시작(당시 34세)</p> <p>1986년 출가물질(부산)</p> <p>2023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해녀</p>

나. 강○○ 해녀(81세)

조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담 일시:</b> 2023년 4월 11일 오후 16시(1차) 2023년 4월 30일 오후 13시~16시(2차: 물질 현지조사) 2023년 6월 13일 오후 18시(3차)</li> <li>▪ <b>면담 장소:</b> 강○○ 해녀 자택, 서귀포시 싹섬 앞바다(서부 지역)</li> </ul>
생애사	<p>1943년 서귀포시 보목동 출생</p> <p>1963년 본격적인 물질 시작(당시 20세)</p> <p>1963년 출가물질(경남 통영, 경북 감포, 전남 완도, 부산 오륙도)</p> <p>1967년 24세에 결혼(자녀는 2남 2녀)</p> <p>2023년 서귀포시 보목동 서부 해녀</p>

다. 현○○b 해녀(65세)

조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담 일시:</b> 2023년 4월 11일 오후 18시(1차) 2023년 4월 30일 오후 13시~16시(2차: 물질 현지조사) 2023년 6월 13일 오후 16시(3차)</li> <li>▪ <b>면담 장소:</b> 현○○b 해녀 자택, 싹섬 앞바다(서부 지역)</li> </ul>
생애사	<p>1958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출생</p> <p>1975년 경남 삼천포 출가물질 동행(물질 배우기)</p> <p>1979년 결혼과 동시에 본격적인 물질 시작(당시 22세, 자녀는 1남 1녀)</p> <p>1980년 출가물질(전남 초도, 흑산도 외, 일본)</p> <p>2023년 서귀포시 보목동 서부 해녀</p>

르. 현○○c 해녀(84세)

조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담 일시:</b> 2023년 4월 25일 오후 17시</li> <li>▪ <b>면담 장소:</b> 현○○c 해녀 자택</li> </ul>
생애사	<p>1940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출생</p> <p>1951년 본격적인 물질 시작(당시 11세)</p> <p>1960년 출가물질(충청도, 전라도, 부산)</p> <p>1966년 22세에 결혼(자녀는 2남 4녀)</p> <p>2023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해녀</p>

ㄱ. 한○○ 상인(82세)

조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담 일시:</b> 2023년 4월 12일 오후 16시</li> <li>▪ <b>면담 장소:</b>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할망장</li> </ul>
생애사	<p>1942년 제주시 이호동 출생</p> <p>1962년 결혼(자녀는 2남 4녀)</p> <p>1994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사(제주시 사라봉 위치)</p> <p>1998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에서 장사(제주시 도두동 위치)</p> <p>2023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 상인</p>

ㄴ. 강○○ 상인(79세)

조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담 일시:</b> 2023년 4월12일 오후 17시</li> <li>▪ <b>면담 장소:</b>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할망장</li> </ul>
생애사	<p>1945년 제주시 삼양동 출생</p> <p>1970년 결혼(자녀는 5남 1녀)</p> <p>1995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사(제주시 사라봉 위치)</p> <p>1998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에서 장사(제주시 도두동 위치)</p> <p>2023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 상인</p>

ㄷ. 김○○ 상인(78세)

조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면담 일시:</b> 2023년 6월12일 오후 16시</li> <li>▪ <b>면담 장소:</b>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할망장</li> </ul>
생애사	<p>1944년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출생</p> <p>1971년 결혼(자녀는 2남 2녀)</p> <p>1998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에서 장사(제주시 도두동 위치)</p> <p>2023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 상인</p>

## 2) 관련자 조사

할망바당과 할망장에 대한 구술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 해녀나 할망장의 상인의 생애담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구술증언을 채록하였고 그 대상자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로 할망장과 관련된 시장 관계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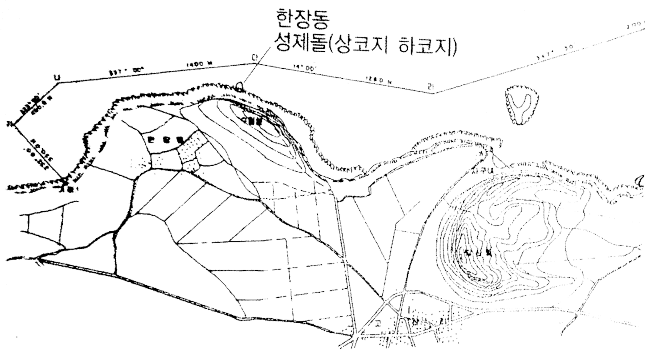
분류	면담대상자
할망바당	<p>서귀포시 보목동 현○○b 해녀 자녀(남, 1982년생, 서귀포시 동홍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일시: 2023년 4월 11일 오후 20시</li> <li>▪ 면담 장소: 보목동 현○○b 해녀 자녀의 자택</li> </ul>
할망장	<p>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회장(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일시: 2023년 6월 7일 낮 12시</li> <li>▪ 면담 장소: 방문하였으나 외근 중인 관계로 전화 인터뷰</li> </ul>
	<p>제주시청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관리부서 담당자(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일시: 2023년 6월 7일 오후 13시</li> <li>▪ 면담 장소: 방문 인터뷰를 계획하였으나 담당자가 업무 시간이라 어렵다고 하여 전화 인터뷰로 대체</li> </ul>
	<p>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여, 1977년생, 제주시 아라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일시: 2023년 5월 17일 오후 14시</li> <li>▪ 면담 장소: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할망장</li> </ul>
	<p>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여, 1962년생, 제주시 노형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일시: 2023년 5월 17일 오후 15시</li> <li>▪ 면담 장소: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할망장</li> </ul>
	<p>경북 문경읍사무소 전통시장부서 담당자(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일시: 2023년 6월 7일 오후 14시</li> <li>▪ 면담 장소: 지역상 직접 방문이 어려워 전화 인터뷰</li> </ul>

### 3) 장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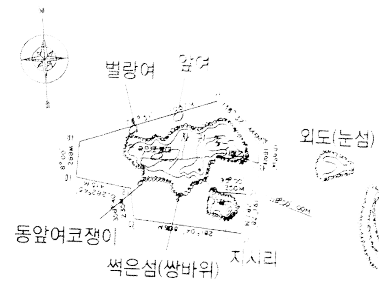
필자가 할망바당과 할망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크게 어장 구역과 오일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1) 할망바당 어장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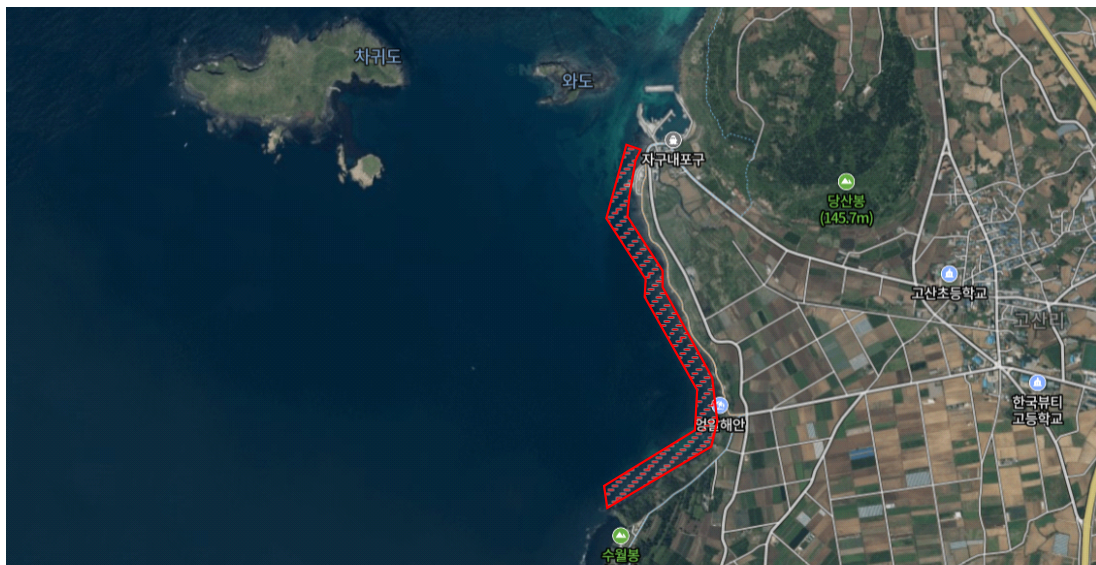
##### ㄱ.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바다



<그림 II-2> 한경면 고산리 어장구역도43)



<그림 II-3>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어장구역도44)



<그림 II-4> 한경면 고산리 할망바당 조업 구역45)

4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의 생업과 문화』, 2009, 97쪽. 그림 재인용

4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위의 책. 그림 재인용.

45) 구글 지도 [www.google.co.kr/maps]에 할망바당 조업구역은 필자가 표시함.

<그림 II-2>와 <그림 II-3>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와 차귀섬의 어장구역도이다. 고산리 공동어장은 차귀도와 와도(臥島)를 가진 해산물이 풍부한 공동어장이다. 제주시 한경면의 용수와 고산은 자구내의 냇가를 구분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으나 바다 어장의 경계구분은 없어서 와도(臥島)과 차귀도는 고산과 용수의 공동어장이다. 해산물이 많이 나는 앞어나 와도(臥島)는 고산에 가깝고 행정구역상으로도 고산에 속한다.<sup>46)</sup> <그림 II-4>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할망바당 조업구역이다. 해녀들은 배를 타고 차귀도로 가서 섬 일대의 바다에서 물질을 하나, 고령의 해녀나 몸이 불편한 해녀는 할망바당에서 물질을 한다.

#### 나. 서귀포시 보목동 바다

아래의 <그림 II-5>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어장구역도이다. 보목동은 ‘불목리’, ‘불레낭개’로 불렸는데, 불레낭개는 불레낭(보리장나무)이 많은 포구라는 뜻이다.<sup>47)</sup> 보목동 앞바다에 있는 섬에는 밀물과 썰물 차가 심해 환경오염이 덜 되었고 감태와 미역, 몸 등의 해초가 많이 난다.<sup>48)</sup>



<그림 II-5> 서귀포시 보목동 어장구역도<sup>49)</sup>

4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2009, 96쪽.

47) “‘불레낭(불레남)’은 표준어 ‘불레나무(보리장나무)’에 대응하는 말이다. … 1709년의 <탐라지도(耽羅地圖)>를 보면, 불레낭개연대 동남쪽 바닷가 … 지금 정술내 하류에 甫木浦(보목포)라 표기하고, 이중의 <南槎日錄(남사일록)>을 보면, 불레낭개연대를 ‘甫木浦西邊烟臺(보목포서변연대)’라 한 것으로 보아, 애초에는 정술내 하류 일대, … ‘불레낭개’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오창명, 「제주의 고유 개(浦·浦口)」, 『제주발전포럼』, 53, 2015, 72쪽).

4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2009, 454쪽.

4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2009, 455쪽. 그림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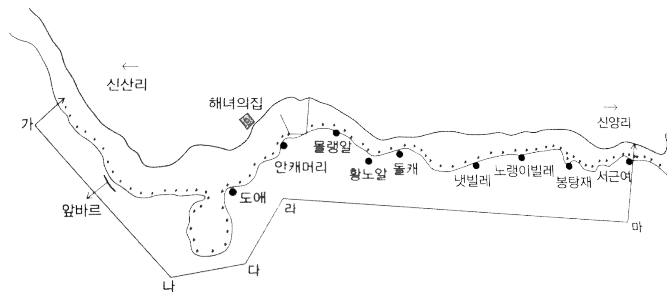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II-6>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서부 할망바당 조업 구역이다. 해녀들은 깊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고령의 해녀나 물질을 시작한 경력이 짧은 애기해녀는 할망바당에서 물질을 한다.



<그림 II-6> 서귀포시 보목동 서부 할망바당 조업 구역<sup>50)</sup>

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다



<그림 II-7> 성산읍 온평리 어장구역도<sup>51)</sup>

<그림 II-7>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어장구역도이다. 미역 품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온평리 바다에서 물질 작업을 하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팔아 학교를 지은 ‘학교바당’의 역사가 있다. 온평리 바다 해안선을 따라 신양을 경계로 해서 서근여-봉탕재-노랭이빌레-넷빌레-달개-황날(황노알)-몰래알-안케

50) 구글 지도 [www.google.co.kr/maps]에 할망바당 조업구역은 필자가 표시함.

5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2009, 375쪽. 그림 재인용.

머리-여마진개-돌개-신산까지 6킬로미터나 되는 바다 어장이 길게 펼쳐져 있다.<sup>52)</sup>



<그림 II-8> 성산읍 온평리 학교바당 조업 구역<sup>53)</sup>

<그림 II-8>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학교바당 조업구역이다. 현재까지도 학교바당이 있으며 앞은 바다는 할망바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 할망장

### ㄱ.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동측에 위치한 할망장은 만65세 이상인 할망들이 자가 생산한 농작물 등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준 장소로 1998년 11월 22일에 제주시 도두동으로 전통시장이 이전하면서 시장 변영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마련하였다.

5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2009, 374쪽.

53) 구글 지도 [www.google.co.kr/maps]에 학교바당 조업구역은 필자가 표시함.





<사진 II-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 입구<sup>54)</sup>   <사진 II-2>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의 전경<sup>55)</sup>

<사진 II-1>은 현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망장 입구의 모습이고 <사진 II-2>는 할망장의 전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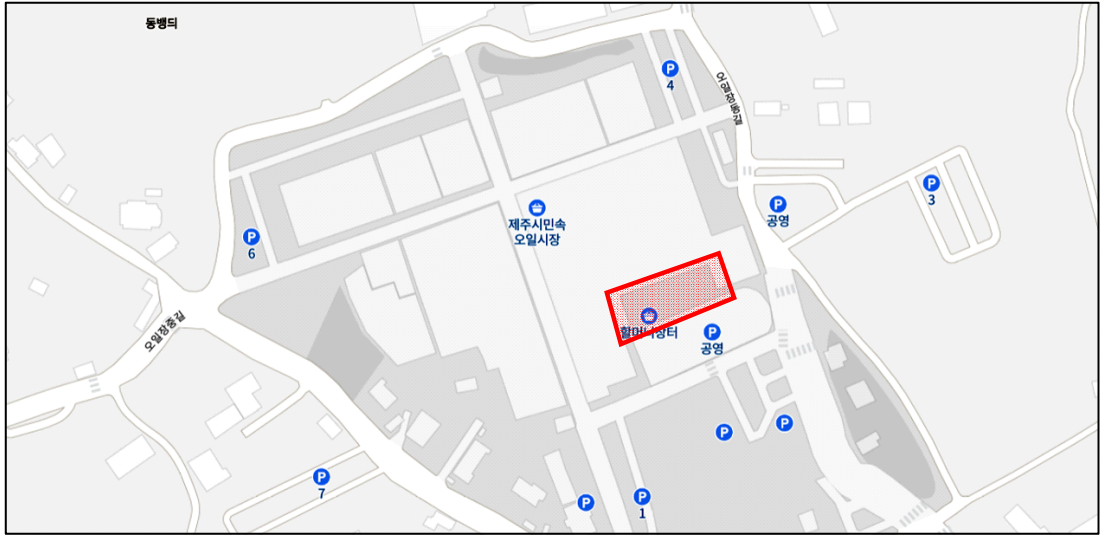


<그림 II-9>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위치도<sup>56)</sup>

54) 필자 촬영 (2023.04.12.).

55) 필자 촬영 (2023.06.12.).

56)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에 필자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위치 표시.



<그림 II-10>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할망장 범례57)

<그림 II-9>, <그림 II-10>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위치도와 할망장의 범례이다.

<표 II-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별 구성비58)

시설별	면적(㎡)	구성비(%)
장옥시설(7동)	6,987	12.4
할머니장터	1,018	1.8
노지장터	10,112	18.1
녹지	3,760	6.7
도로·주차장	32,347	57.8
휴게실·쓰레기장	1,760	3.2

<표 II-1>은 2007년 기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별 구성비이다. 시장 전체 면적의 1.8퍼센트가 할머니장터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에 필자가 할망장 표시.

58) 허진, 앞의 논문, 2007. 40쪽. 표 재인용.

### Ⅲ. 경험과 기억에 나타난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

#### 1. 할망바당, 배려와 나눔의 공간

제주 해녀 공동체 문화에서 특이한 양식 중 하나로 할망바당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할망바당, ‘할머니바다’는 나이든 해녀들을 위해 먼 바다의 소라 가운데 크기가 작은 것을 가까운 앞바다에 뿌려 노(老) 해녀들이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한 어장을 가리킨다.<sup>59)</sup> 배려와 신뢰가 나눔의 문화로 이어지는 끈끈한 공동체는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유산으로 전승될 필요가 있다.

##### 1) 바다와 해녀 공동체

###### (1) ‘우리 바다’ : 바다밭과 해녀회

제주 바다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도라는 한정된 특수한 지역을 배경으로 마을 공동의 바다로 형성되어왔다. 제주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젖줄이기에<sup>60)</sup>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대를 이어가며 제주 바다를 지켜왔다. 이 중심에는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상징해온 해녀가 있다.<sup>61)</sup>

반복적인 자맥질로 수중의 해산물을 채집하는 어로법(漁撈法), 제주에서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수렵·채집 활동은 원래 여자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기 몸을 보호할 장비 하나 없이 바다로 들어가 하는 작업이니 목숨을 잃기 태반이었으며,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 관아에 올릴 진상품의 수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여성들까지 바다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잠수(潛嫂), 잠녀(潛女)가 등장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해녀(海女)라는 말이 들어와 보편화되었다.<sup>62)</sup>

제주 해녀들에게 바다도 육지밭<sup>63)</sup>의 연장선상에 있다. 농사를 짓는 물의 밭만

59) 좌혜경·권미선,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 2009, 241쪽.

60) 김순자,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 한그루, 2016, 32쪽.

61) 김영돈, 「제주 해녀의 실상과 의지」, 『비교민속학』 18, 2000, 128쪽.

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jeu.go.kr/haenyeo/index.htm>] 참고.

63) 강대훈은 바다밭과 육지밭을 구분해 해녀들의 인식차이를 인류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강대

이 밭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또한 바다밭으로 인식하며, 따라서 이 나잠어장(裸潛漁場)은 해녀들의 소중한 생업현장이자 경제적 터전이다.<sup>64)</sup> 강수경(2023)<sup>65)</sup>에 따르면, 바다밭은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해녀들이 물질 활동을 벌이는 ‘어장’으로 해녀는 이 마을 어장에서의 물질 행위를 ‘바다 농사’라고 여긴다. 육지의 밭농사와 비교하여 해녀의 물질 행위 역시 동일한 마을 어장에서 해마다 물질 활동 주기에 따라 자원을 채취하는 생업활동이 된다.

바다를 소유할 수는 없으나 제주 해녀들은 바다를 아무나의 바다가 아닌 ‘우리 바당’이라고 부르는 이 바다밭 개념에는 강한 소유의식과 권리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sup>66)</sup>

현재 제주도 각 마을에는 마을 어장의 어업권을 가진 어촌계가 있고 이 어촌계 산하에는 ‘해녀회’가 있다. 해녀 공동체는 물질 실력에 따라 하군, 중군, 상군 세 계급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구분은 해녀 조직의 자체적인 특성이다. 오랜 기간 물질을 해와서 물질 기량이 뛰어나고 바다 내부를 잘 아는 상군 해녀가 해녀회를 이끌고 있다.

[사례3-1]

40년 전이라. **어촌계 계장님 허락하에 조합 가입하고 절차 반양 해녀로 물질해서.** 당시엔 소라를 많이 잡으면 상군, 중간치는 중군, 적게 잡으면 하군이여신디 잡는거로 차별은 어서나서. 당시에 전복이영 오분자기가 돈 많이 되났주. 보목리<sup>67)</sup>는 동부, 중부, 서부 이추록 바다 경계선이 이서. 각 지역마다 **해녀회도 있고 회장도 있지. 세 군데가 운영되명 바당이 돌아가는거라.** 근데 우리 바당 오늘 잔잔허난 물질허래 들어가자 행으네 다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서로 전화행 의논하명 합의방 들어가매.** 오늘 동부는 바당이 세지 않양 들어가진다 해도 중부가 바당 세민 못들어가. 게난 서로 합의가 되어야.<sup>68)</sup>

훈, 앞의 논문, 2017)

64)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133쪽.

65) 강수경, 「제주도 바다밭 지식과 어로 민속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23, 64쪽.

66) 강대훈, 앞의 논문, 2017, 33~36쪽.

67) 1981년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보목리는 보목동이 되었는데, 구술기록에서 지명인 경우 그대로 인용하였다.

68) 현○○b(여, 1958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4.11., 필자 면담.

(40년 전이야. **어촌계 계장님 허락하에 조합 가입하고 절차를 받아서 해녀** 물질을 시작했어. 당시에는 소라를 많이 잡으면 상군, 중간은 중군, 적게 잡으면 하군이었는데 잡는 것으로 차별은 없었어. 당시에 전복, 오분자기는 돈이 많이 되었지. 보목리는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바다 경계선이 있어. 각 지역마다 **해녀회**도 있고 회장도 있지. **세 군데가 운영되면서 바다가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바다가 오늘 잔잔하니 물질하러 들어가자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서로 전화해서 의논하며 합의를 보고 들어가.** 오늘 동부는 바다(물살)가 세지 않아서 들어간다 해도 중부가 세면 못 들어가.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해.)

해녀회에서는 이 바다밭에서의 물질 작업과 관련된 제반 일에 관해 회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다. 이 해녀 공동체는 해산물 채취시기, 잠수작업 시간,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크기 등을 규정하고, 물질 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통제하고 있다. 근현대화 과정에서 화폐경제로 전환되고 해녀의 물질이 부가가치를 인정받게 된 다음 해녀 공동체는 자본주의적 무한경쟁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로부터의 협력과 연대를 선택했다. 제주의 남성 어부들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과 반대로 해녀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생산의 자발적인 억제를 택하였고 이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sup>69)</sup>

## (2) 수직과 수평 사회: 신입과 노년의 해녀

제주 해녀의 나눔과 배려 문화에 담긴 공동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 여성의 딸(딸)-어명(어머니)-여성으로서의 삶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사례3-2]

**친정 어명이 (서귀포시) 신산리에서 알아주는 해녀여서.** 상군해녀 중에서도 제일 물질을 잘 해나쥬게. 나는 해녀치고는 이른 나이에 물질 시작한건 아니라. 스물두 살에 보목리로 시집을 와신디 왕보난 아무것도 어신 집인거라. 조그마한 구멍가게 행으네 사는디 그걸로 어떻 먹고 살아져. 경행 해녀 한번 해

69) 노우정, 앞의 논문, 2021, 1~2쪽.

보자 스물여섯부터가 본격적으로 물질했지. 경허기 시작한게 물질하명 자식들 키우명 40년이 지나가부렀주.<sup>70)</sup>

**(친정 어머니가 서귀포 신산리에서 알아주는 해녀였어.** 상군해녀 중에서도 제일 물질을 잘했지. 나는 해녀치고는 이른 나이에 물질을 시작한 것은 아니야. 스물두 살에 보목리로 시집을 왔는데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집인 거야.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며 사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해녀 한번 해보자 스물여섯부터가 본격적으로 물질을 했지. 그렇게 시작한 게 물질하며 자식들 키우면서 40년이 지나가버렸어.)

[사례3-3]

**우리 어머니는 물질만 허명 살아서.** 물질행으네 오라방네 공부시키고 농사 지으명 먹고 사는 생활했지. 먹고 사는 생활에 주로 바당. 어머니 물질도 일등으로 잘 해나서. 나는 어머니에 비하면 똥군이지. 스무 살 때부터 시작행 이제 61년 했구나. 그자 이 바당에 취미가 이성으네 하는거지. 뭐 경 크게 혈줄도 모르고 지금은 머릿 채웁 하는거지.<sup>71)</sup>

**(우리 어머니는 물질만 하면서 살았어.** 물질해서 오빠네 공부시키고 농사지으면서 먹고 사는 생활했지. 먹고 사는 생활에는 주로 바다. 어머니는 물질도 일등으로 잘하셨어. 나는 어머니에 비하면 서툰 해녀지. 스무 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61년 했구나. 그냥 이 바다에 취미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크게 할 줄도 모르고 지금은 머릿수 채우려고 하는거지.)

[사례3-4]

**어머니가 그렇게 물질을 잘하는 해녀여서. 어머니가 해녀난 자연스레 나도 물질 배우명 컸주.** 애기해녀에서 70년 지나난 이젠 할망해녀 되버렸지만은. 어머니영 오래 살지도 못해나서. 나는 어릴 때 외가에 맡겨져났지. 어머니는 육지에 물질허래 많이 다녀나신디 6·25 터지난 제주도 못와났주. 나중이 봐신디 나영 딱 2년 사난 나는 시집 완.<sup>72)</sup>

70) 현○○b(여, 1958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4.11., 필자 면담.

71) 강○○(여, 1943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4.11., 필자면담.

72) 현○○c(여, 1940년생), 성산읍 온평리, 2023.4.25., 필자면담.



(어머니가 그렇게 물질을 잘하는 해녀였어. 어머니가 해녀니까 자연스레 나도 물질 배우면서 컸지. 애기해녀에서 70년 지났으니 이젠 할망해녀 되버렸지만은. 어머니와 오래 살지도 못했었어. 나는 어릴 때 외가에 맡겨졌었지. 어머니는 육지에 물질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6·25 터져서 제주도 못 왔었지. 나중에 봤는데 나하고 딱 2년 사니 나는 시집 왔어.)

[사례3-5]

**우리 친정은 어머니부터 언니들까지 다 해녀라부난** 나신틴 허지 말랜 다들 반대했주게. 힘든 거 무사하젠 허냐고. 서울강 공장다니라고. 경행 일배우러 갔단 제주도로 내려와신디 지금 남편 만났주. 결혼행 살당으네 물질도 막 늦게 시작해서.<sup>73)</sup>

**(우리 친정은 어머니부터 언니들까지 다 해녀여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다들 반대했어. 힘든 거 왜 하려고 하냐고. 서울 가서 공장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일 배우러 갔다가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지금 남편 만났어. 결혼해서 살다가 물질도 늦게 시작했어.)

해녀 일이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제주 해녀가 물질에 적합한 특이한 체질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복된 훈련과 경험으로 본인만의 기술을 터득하며 강하고 능숙한 해녀가 되는 것이다. 제주 해녀의 물질 자체가 공동체 성격이 있는데, 물질 작업이 해녀 개개인 활동처럼 보이지만 어머니에서 딸로, 그리고 같은 동료로 전승되면서 공동체성이 강해진 것이다.

상군 해녀가 다른 해녀들을 지도하며 제주 해녀 공동체에서 물질을 처음 하는 해녀는 애기바당에서, 늙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숨이 짧아지는 해녀는 할망바당에서 물질하도록 하기도 한다. 제주 해녀 공동체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면서 조직사회이다.<sup>74)</sup> 할망바당과 애기바당이 따로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이렇게 분리된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연장자와 연소자를 배려하는 수평적인 관계와 나눔이라는 제주 해녀 문화만의 고유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sup>75)</sup>

73) 현○○a(여, 1951년생), 환경면 고산리, 2023.6.3., 필자면담.

74) 양경숙, 「제주해녀의 직업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38쪽.

다만, 강수경(2023)의 연구에서 언급되듯이 오늘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해녀의 물질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런 수평하고 평등한 해녀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해양자원이 감소하고 경제 수준이 달라지면서 물질 기량이 뛰어난 해녀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 바다로 나가기 꺼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군과 중군, 하군의 구분 없이 대부분 해녀가 갯가에서 작업하려고 하여 고령의 해녀와 갈등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sup>76)</sup> 실제로 필자가 만난 구술자에게서도 이와 관련된 현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례3-6]

바당이 예전같지 않아부난 물질헐게 어서져감서. 여기만이 아니고 이 제주도 바당 다 마찬가지로. 물질허래 들어강보민 깨끗해나신디 바당안이 뿌영해. 모자반이영 감태가 그 추룩도 많아나신디 이젠 안 보여감서. 게난 **면바당에 물질 가도 가정오는게 많지 않은난 기냥 조끄띠서 하젠 하당보른 또 실랑이 되는거라.** 요새는 옛날같지 않앙으네 물질도 허멍 발일도 허는 해녀가 대부분 인디 위험 감수하멍 면바당에 안 가젠들 허주게. <sup>77)</sup>

(바다가 예전 같지 않아서 물질할 게 없어서 가고 있어. 여기만이 아니고 이 제주도 바다 다 마찬가지야. 물질하러 들어가 보면 깨끗했었는데 바다 안이 뿌예. 모자반이랑 감태가 그렇게도 많았었는데 이젠 안 보여가. 그러니 **면 바다에 물질 가도 가져오는 게 많지 않으니 그냥 가까운 데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실랑이 되는 거야.**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물질도 하면서 발일도 하는 해녀가 대부분인데 위험 감수하면서 먼 바다에 안 가려고들 하지.)

[사례3-7]

옛날에야 바당안에 해산물들이 많은 잡는대로 망사리 가득이었지. 근데 요새는 안 고라도 다 알지? 바당안이 오염되부난 해산물이 어서. 먼 바당에 강으네 그나마 있단것도 옛말이고. 어디 해녀 죽었져 뉴스 나와가민 흠착행 먼 바당도 안 나가젠해져. 먼 바당 강으네 옛날같이 물건 행와지면이야 감수

75) 양경숙, 앞의 논문, 2020, 155쪽.

76) 강수경, 앞의 논문, 2023, 64쪽.

77) 현○○a(여, 1951년생), 환경변 고산리, 2023.6.3., 필자 면담.



행 간담해도 가봐야 물건이 어신디. 게난 그냥 조끄띠서 허젠도 허고 경되당 보른 서로 부딪히주게. 다들 아는 사람들이난 좋게 넘어가당도 앞으로 문제라.<sup>78)</sup>

(옛날에야 바다 안에 해산물들이 많아서 잡는 대로 망사리 가득이었지. 근데 요새는 말 안 해도 다 알지? 바다 안이 오염되어서 해산물이 없어. 먼 바다에 가면 그나마 있다는 것도 옛말이고. 어디 해녀 죽었다 뉴스 나오면 겁이 나서 먼 바다도 안 나가려고 하게 돼. 먼 바다 가서 옛날같이 물건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이야 감수하면서 간다고 해도 가봐야 물건이 없는데. 그러니 그냥 가까이 운데서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부딪히거든. 다들 아는 사람들이니 좋게 넘어 가다가도 앞으로 문제라.)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새로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다밭 해산물의 고갈이고, 둘째로 해녀가 고령화되면서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자구책으로 인한 변화이다. 게다가 매년 제주 해녀들의 수가 감소하고 어장이 줄어들면서 제주 해녀 공동체 양식을 대표하는 불턱의 문화 역시 사라지고 있다.<sup>79)</sup> 역사적으로 험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동, 신뢰,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해녀 공동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2) 제주 해녀 :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제주 해녀 문화의 큰 가치 중 하나는 ‘해녀’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만의 특성이다. 고달프고 힘든 물질 작업에서 협동을 전제로 물질을 함께하는 동료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있다. 해녀에게 동료는 경쟁자이면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바다 물질 작업 전후의 위험 상황에 대해 상호 예방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공동체 경제의 바탕이면서 해녀들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바다는 어느 한 해녀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장소이다. 갯둑이나 불가사리 구제, 어장 감시 등의 어장 관리부터,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공동체 사업들을 해야 하며, 무

78) 강○○(여, 1943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6.13., 필자 면담.

79) 양인실, 앞의 논문, 2022, 53쪽.

엇보다도 물질 작업 자체가 혼자 할 수 없고 동료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녀 공동체는 강한 연대성을 지녀왔다.<sup>80)</sup> 이러한 공동체성 속에서 제주 해녀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공동체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1) 나눔의 문화 : 여러 바당과 계석

제주 해녀 문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나눔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할망바당, 학교바당, 이장(반장)바당, 계석이다.

먼저 할망바당은 나이가 많은 해녀들이 작업하는 수심이 얇은 공동어장의 한 구역이다. 좌혜경(2009)은 할망바당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제주 해녀들은 한때 육지의 여러 섬이나, 심지어 일본에까지 진출해 그곳의 어느 바다에서라도 자신의 울안을 뒤집듯이 헤엄쳐 다니면서 해산물을 캐왔던 전력을 자랑한다. 과거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한 채 오늘도 바다에서는 나이 든 해녀들이 내뿜는 ‘호이, 호이’ 하는 숨비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과거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노 해녀들이 작업을 벌이는 곳, 이른바 ‘할망바당’이다.<sup>81)</sup>

할망바당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이다. 가파도 어촌계에서는 65세 이상 해녀들만이 물질할 수 있도록 수심 4~5미터 깊이의 가파도 전역의 얇은 바다를 할망바당으로 지정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도 할망바당이 있다. 마라도 연안은 남북이 크게 달라 북쪽은 가파른 절벽이 없어 툫 채취 작업이 쉽지만 그 외에는 거의 벼랑이라 험하다. 마라도 바다맡은 조합원 11명의 어촌계가 관리하고 어촌계 조합원만이 툫 채취권이 있는데, 섬 조합원들은 3명의 섬 할머니에게 안전지대인 북쪽의 툫밭을 주고 자신들은 험한 낭떠러지에서 툫을 채취한다. 이 북쪽 바다를 두고 섬 사람들은 ‘할망바당’이라 하는데, 이 외의 툫밭은 ‘조합원바당’, 곧 젊은이 바다인 것이다.<sup>82)</sup>

80) 민윤숙, 「제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 55호, 2012, 46쪽.

81) 좌혜경, “‘계석’과 ‘할망바당’”, 경향신문, 2009.10.12.

[[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0910121758191](http://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0910121758191)]

82) 허남춘·허영선·강수경, 『할망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음식이야기』, 이야기섬, 2015, 143쪽.

송성대(1998)는 할망바당에 대해, 구좌읍 등의 제주 본섬에서도 보이는데 작업 능력이 떨어진 노해녀가 쉽게 물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용어장이지만 반드시 할머니들만이 물질하는 것은 아니고 생계가 어려운 병약자나 독신인 총각까지도 물질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sup>83)</sup>

[사례3-8]

나같이 나이든 할망은 이제 깊은 바당엔 못 들어가주. 상군들은 막 저 깊은 디 강 오래 물질해져도 나이 드난 나는 오래도 못허여. 경행 그 앞쪽이 **얕은 디서 물질허주게. 거긴 상군들은 안 오고 나같이 나이들엉 버친 할망들이 물질허주.**<sup>84)</sup>

(나같이 나이든 할머니는 이제 깊은 바다엔 못 들어가지. 상군들은 아주 저 깊은 곳에 가서 오래 물질할 수 있어도 나이가 드니 나는 오래 하지도 못해. 그래서 그 앞쪽에 **얕은 곳에서 물질하지. 거긴 상군들은 안 오고 나같이 나이 들어서 힘든 할머니들이 물질하지.**)

[사례3-9]

우리 고산은 다른디랑 틀령으네 어촌계장이 남자라. 배를 몰양 차귀도로 가서 물질을 해야난 남자주게. **나이가 많이 든 할망이나 호꿈 젊어도 폐활량이 낮은 사람들은 배도 안타고 얕은디서 물질허매. 할망바당이랜 행으네이.** 거긴 우리같은 사람은 가문 절대 안 돼. 경해사 그 해녀들도 물질행 잡앙가주. 서로 약속이라.<sup>85)</sup>

(우리 고산은 다른 곳이랑 달라서 어촌계장이 남자야. 배를 몰아서 차귀도로 가서 물질을 해야 하니 남자지.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나 조금 젊어도 폐활량이 낮은 사람들은 배도 안 타고 얕은 곳에서 물질해. 할망바당이라고 하면서.** 거긴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 절대 안 돼. 그래야 그 해녀들도 물질해서 잡아가지. 서로 약속이야.)

83) 송성대, 앞의 책, 1998, 345쪽.

84) 강○○(여, 1943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6.13., 필자 면담.

85) 현○○a(여, 1951년생), 한경면 고산리, 2023.6.3., 필자 면담.

이처럼 노인과 병자, 가족이 없는 이들 같은 약자를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혜로운 배려로 지지해주는 정신을 할망바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할망바당에 담겨 있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에 대해서 2009년 김명환 가과도 전 어촌계장은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바다 생태계 변화로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자는 게 바로 할망바당의 정신”이라고 말했다.<sup>86)</sup>

다음으로, 과거 제주 지역의 마을에서 학교를 만들 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내거나 출역을 나가 돕기도 하였다. 해녀들은 바다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이곳에서 수확된 해산물은 모두 학교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어장 구역을 ‘학교바당’이라고 불렀다.<sup>87)</sup>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sup>88)</sup>의 ‘학교바당’이다. 온평초등학교는 1946년 네 개의 교실로 개교하였는데 1950년 화재로 전 교실이 소실되었다. 해녀들은 또다시 학교바당에서 채취한 미역을 팔아 학교 건립 자금을 마련하여 초등학교를 재건하였다.

[사례3-10]

옛날엔 물건이 잘도 많아나서. 구쟁기영 전복이영 해삼에 메역, 메역은 최고 주. 메역밭이라나서 온평리 바당은. 맛도 좋고. 그 메역이 얼마나 귀한거냐면 학교도 지어시난.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영 해녀들이 고생행 온평초등학교가 세워져서.**

근데 그날이 우리 외가 제사여실꺼라. 사람들이 **학교에 불났덴** 행으네 올라가보난 불타고 이신거라. **1950년 12월에 일어난 일이라.** 해녀들이영 사람들 잘도 하영 올렸주게. 겐디 불났덴 그냥 내불어져. **나무영 후원금허고 해산물 방양 교실 네 개를 지어신디** 나무로 지어난 비오른 비가 새고.

**해녀들이 다시 메역이영 이것저것 물질행 해산물 팔앙 다시 5년만에 온평초등학교 지어서. 5개 교실.** 경허난 우리 아이덜도 온평초등학교 다니명 졸업도 해졌주. 대단한 일해서. 해녀들이영 마을 사람들이영 다들 서로 잘 살젠 헛거 주게. 누구 하나 뭐어시 힘모양.<sup>89)</sup>

86) 황경근, “나눔 바이러스 2009, 제주 해녀의 서로 나누기 정신”, 서울신문, 2009.3.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10009013]

87) 김자경, 「기획특집 지역과 미래」, 『대산농촌』, 2022. 113쪽.

88) 온평리 해녀 잠수회칙에 ‘잠수회의 공동기금은 가장 절실한 사람, 가장 급한 마을 일에 먼저 쓴다’ 라고 성문화되어 있다. 이 나눔의 문화가 학교건립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옛날엔 물건이 잘도 많았었어. 소라랑 전복이랑 해삼에 미역, 미역은 최고지. 미역밭이었어 온평리 바다는. 맛도 좋고. 그 미역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학교도 지었으니.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랑 해녀들이 고생해서 온평초등학교가 세워졌어.

근데 그날이 우리 외가 제사였을 거야. 사람들이 학교에 불났다고 해서 올라가서 보니 불타고 있는 거야. 1950년 12월에 일어난 일이야. 해녀들이랑 사람들 아주 많이 울었어. 그런데 불났다고 그냥 놔둘 수 있어. 나무랑 후원금하고 해산물 받아서 교실 네 개를 지었는데 나무로 지으니 비 오면 비가 새고.

해녀들이 다시 미역이랑 이것저것 물질해서 해산물 팔아서 다시 5년 만에 온평초등학교 지었어. 5개 교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도 온평초등학교 다니고 졸업도 할 수 있었지. 대단한 일 했어. 해녀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다들 서로 잘 살려고 한 것이지. 누구 하나 불만 없이 힘 모아서.)

위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제주 마을 사람들, 특히 해녀들의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나눔과 배려의 형평성으로 작용하여 바다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의 마을이 교육 공동체가 되었다.

그 외 비양도에는 이장바당, 마라도에는 반장바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장바당은 마을의 중요한 용무를 담당하던 이장의 급료를 마련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반장바당은 해녀들을 위해 심부름하던 반장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형성되었는데 어로(漁撈)가 전업인 마라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약 5백 미터의 폭을 가진 바다이다.<sup>90)</sup>

강만익(2022)은 제주 해녀의 계석 문화가 할망바당, 학교바당, 이장(반장)바당을 탄생시켰다<sup>91)</sup>고 보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소 생소한 말인 ‘계석’에 관해, 제주어 사전에서는 본래 “해녀들이 물질해 장만한 것을 구경하다가 해녀로부터 조금씩 선물로 받는 해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89) 현○○(여, 1940년생), 성산읍 온평리, 2023.4.25., 필자 면담.

90) 송성대, 앞의 책, 1998, 345쪽.

91) 강만익, “제주인의 전통적 나눔문화”, 제민일보, 2022.11.27.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268>]

[사례3-11]

물질을 잘하게 되난 이것저것 하영 잡아서. 나만 하영 잡았던 좋아만 헐게 아니주게. **나도 옛날 물질 막 배왕 애기해녀일 때 도움 받아신디 나도 도와야 주. 서로 도우는거라. 경해야 맘이 편해.**<sup>92)</sup>

(물질을 잘하게 되니 이것저것 많이 잡았어. 나만 많이 잡았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지. **나도 옛날 물질 금방 배워서 애기해녀일 때 도움 받았는데 나도 도와야지. 서로 돕는 거야. 그래야 맘이 편해.**)

[사례3-12]

**이젠 늙어부난 옛날만큼 물질도 못하고 얇은 할망바당서 잡는게 양이 얼마 안 되주. 경헌디 상군들이 자기네 잡은 거. 해삼도 주고 전복도 주고 영챙겨 줘. 게은 그거 받아만 지나이. 물질 나갈 때 머리수 채우는 거로 나도 돕젠 허지. 머리수 채워사 고치들 물질 나가지만. 사람이 어서도 못나가.**<sup>93)</sup>

(**이젠 늙어서 옛날만큼 물질도 못하고 얇은 할망바당에서 잡는 게 양이 얼마 안 되지. 그런데 상군들이 자기네 잡은 것. 해삼도 주고 전복도 주고 이렇게 챙겨줘. 그러면 그거 받을 수만 있나. 물질 나갈 때 머릿수 채우는 것으로 나도 도우려고 하지. 머릿수 채워야 같이 물질 나갈 수 있으니. 사람이 없어도 못나가.**)

[사례3-13]

**지금이야 상군이주만 나도 나이 금방 먹영 더 늙으면 깊은디는 못들어갈꺼고 할망바당에 가겠지. 경하은 그때 나도 도움 받게 될 때가 올 수도 이신거라. 이거줬던 나중이 나신디 줍서가 아니라 서로 도와가명 주거니 받거니 정이주게. 물질 해본 해녀덜은 다 알아져. 미역도 채워줄 때 있고 전복이영 해삼이영 소라 챙겨줄 때도 이서.**<sup>94)</sup>

(**지금이야 상군이지만 나도 나이 금방 먹어서 더 늙으면 깊은 데는 못 들어**

92) 현○○c(여, 1940년생), 성산읍 온평리, 2023.4.25., 필자 면담.

93) 강○○b(여, 1943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6.13., 필자 면담.

94) 현○○b(여, 1958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6.13., 필자 면담.

갈 거고 할망바당에 가겠지. 그러면 그때 나도 도움받게 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것 줬다고 나중에 나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주거나 받거나 정이지**. 물질해 본 해녀들은 다 알 수 있어. 미역도 채워줄 때 있고 전복이랑 해삼이랑 소라 챙겨줄 때도 있어.)

이처럼 바다에서 게석은 해산물을 많이 채취한 상군 해녀가 그렇지 못한 하군 해녀에게 자신이 채취한 해산물을 조금씩 나누어주던 행위를 일컫기도 한다.

## (2) 불턱과 공동체 정신

불턱이란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고 한가운데에 불을 지펴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전에 모여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점검하거나 물질하다 얼어버린 몸을 녹이고 육체노동에 허기진 배를 채우던 휴식처로 지금의 ‘해녀 탈의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 [사례3-14]

고무옷으로 된지가 50년 되신가. 광목으로 물옷 만들었 소중이. 물 닿으면 맨살이 골아도 모를끼여. 그런거허고 적삼행으네 맨손으로 다 들어가지. 4월까지 물에 들어가면 추우매. **막 추워 나오민 불턱에 강 불 살랑 쪼고 미역귀영 구쟁기영 구워 먹으멍 허기진 배 채워서**. 구워도 먹고 집에도 아정왕 젓도 담그고.<sup>95)</sup>

(고무옷으로 된 지가 50년 되었나. 광목으로 물옷 만들어서 소중이. 물 닿으면 맨살이 말해도 모를 거야. 그런 것하고 저고리해서 맨손으로 다 들어가지. 4월까지 물에 들어가면 추워. **엄청 추워서 나오면 불턱에 가서 불 지펴서 쪼고 미역귀랑 소라랑 구워 먹으면서 허기진 배 채웠어**. 구워도 먹고 집에도 가져와서 젓도 담그고.)

제주 해녀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제주 해녀만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이 불턱에서 찾는다.<sup>96)</sup> 불턱이 단순한 휴게장소나 탈의실로서의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95) 강○○(여, 1943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4.11., 필자면담.

96) 안미정, 앞의 논문, 2008, 116쪽.

해녀들이 고된 물질을 하며 함께 끈끈하게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이자 해녀 공동체 문화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사례3-15]

고무옷이랑 마랑 물소중이영 물적삼 저고리에 수건만 쓰고 물질을 할 때라. 물속에서 추워 오래 있지도 못허여. **물질허당도 서너 번씩 나와 불턱에서 불 쪼명 몸 녹였지.** 고생은 말도 못허여. **꺾치들 불 쪼명 미역귀 구멍 먹어가명 혼자 아니난 견더진거라.**<sup>97)</sup>

(고무옷도 없이 물소중이랑 물저고리에 수건만 쓰고 물질을 할 때야. 물속에서 추워서 오래 있지도 못해. **물질하다가도 서너 번씩 나와서 불턱에서 불 쪼면서 몸 녹였지.** 고생은 말도 못해. **같이들 불 쪼면서 미역귀 구워 먹어가면서 혼자 아니니 견더진 거라.**)

고달프고 힘든 물질 작업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생계유지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끈끈한 정은 특히 해녀 공동체 안의 신뢰를 보여준다. 고영철(2009)은 불턱에 대해 아래처럼 설명한다.

불턱은 제주 해녀들의 쉼터이자 담화 공간이었다. ...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공동 작업인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동의'를 전제로 한다. 불턱은 공동체 문화의 대표적 공간이자 지친 해녀들을 위로했던 소중한 문화공간이지만 해녀의 감소와 탈의실 사용으로 이제는 이용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석'이란 해녀 용어 역시 불턱에서 만들어졌다. 옛날 작업에서든 똥군 해녀들을 응원하고 나이 많은 해녀들의 상실감을 채우는 '한 주먹'이다. 애써 채취한 물건을 몰래 그들의 망사리에 넣어주는 행동은 '공동체'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sup>98)</sup>

강수경(2023)은 불턱에 대해서 협동하고 질서를 지키며 지속되는 생업 공동체인 해녀 공동체가 생산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한 생업민속문화라고 보았

97) 현○○(여, 1940년생), 성산읍 온평리, 2023.4.25., 필자면담.

98) 고영철, “여성만의 공간으로 최고..신평리 검은테기불턱”, 제주환경일보, 2021.4.11.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571>]



다.<sup>99)</sup> 김순이(2009)는 불턱이 휴식처만이 아닌, 애기해녀가 첫 물질을 어른들에게 신고하는 장소이며 기량이 뛰어난 상군해녀로부터 경험을 배우는 곳으로 해녀문화의 전승 장소라고 보았다.<sup>100)</sup>

[사례3-16]

늦게 시작한 물질이란 처음엔 당연히 서툴꺼아니. 물질이 서투난 망사리에 담아정 오는것도 없고. 경헌디 선배해녀들이 내 망사리에 전복도 주고 소라도 주고 해산물 채워주는거라. **처음엔 뭘 몰랑 물속에서는 다 크게 보이는거라.** 전복을 봐신디 살명 경 큰건 본적이 어신거라. **오늘 최고다 하명 올려신디 크기가 무사 경 작으니.** 나중에 알았지. **수경끼민 크게 보이는걸. 선배들이 그거 고라주멍 바당에서는 이 정도인거 잡으면 된다 알려주난 알아져서.**<sup>101)</sup>

(늦게 시작한 물질이니 처음엔 당연히 서투르지 않겠어. 물질이 서투니 망사리에 담아져 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선배 해녀들이 내 망사리에 전복도 주고 소라도 주고 해산물 채워주는 거야. **처음엔 뭘 몰라서 물속에서는 다 크게 보이는 거야.** 전복을 봤는데 살면서 그렇게 큰 것은 본 적이 없는 거야. **오늘 최고다 하면서 올렸는데 크기가 왜 그렇게 작으니.** 나중에 알았지. **수경 끼면 크게 보이는 걸. 선배들이 그거 말해주면서 바다에서는 이 정도인 것 잡으면 된다 알려주니 알게 되었어.)**

경험이 없는 애기해녀는 불턱에 끼어 불을 쪼며 선배 해녀들의 대화도 얻어들이며 바다에 대한 생태 지식을 쌓아간다. 불턱은 신입 해녀가 해녀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자리이면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곳이다. 앞서 보았듯이 제주 해녀들은 해산물의 일정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해두고 마을 전체의 복지에 대한 기부를 당연하게 여기는, 즉 공동체를 위해 베푸는 전통이 있었다.

불턱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힘은 계석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99) 강수경, 앞의 논문, 2023, 56쪽.

100) 유덕상,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 101쪽.

101) 현○○a(여, 1951년생), 환경면 고산리, 2023.6.3., 필자 면담.

[사례3-17]

애기해녀였을 때 물질을 못행 망사리가 빈 날이 많아나서. 그런 날은 선배들이 자기 잡은 거 해삼이영 소라영 채워줬지. 나도 출가물질 다닐 적에 같이 간 동네 친구들 망사리 비면 예전에 선배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해삼이랑 소라 채워주고 해서.<sup>102)</sup>

(애기해녀였을 때 물질을 못해서 망사리가 빈 날이 많았어. 그런 날은 선배들이 자기 잡은 거 해삼이랑 소라랑 채워줬었지. 나도 출가 물질 다닐 적에 같이 간 동네 친구들 망사리 비면 예전에 선배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나도 해삼이랑 소라 채워주고 했어.)

[사례3-18]

내가 아팠으네 작년에 물질을 많이 못 나가난. 그때마다 해녀들이 우리집에 찾아와 물건을 주고 가는거라. 미역이영 해삼이영. 요새 그런거 가능한 세상이라. 앞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별일이 다 생기는 세상에. 아직까지 우리 해녀들은 나눠주는 정 그게 남아있어서.<sup>103)</sup>

(내가 아파서 작년에 물질을 많이 못 나갔어. 그때마다 해녀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물건들 주고 가는 거야. 미역이랑 해삼이랑. 요새 그런 것이 가능한 세상이야? 앞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별일이 다 생기는 세상에. 아직까지 우리 해녀들은 나눠주는 정 그게 남아 있어.)

[사례3-19]

할망들 망사리 영보문 알지. 나도 저 나이 되는 거 금방이고 게문 같을꺼 아니? 미역이영 해삼이영 전복이영 담아주게 되지. 겐디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물질할 때 우리가 숫자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나가지거든. 그분들은 또 머릿수 채워주명 나름의 보답을 해. 덕분에 우리도 물질 나가지고. 서로 돕는게 되는거라.<sup>104)</sup>

102) 현○○c(여, 1940년생), 성산읍 온평리, 2023.4.25., 필자 면담.

103) 현○○a(여, 1951년생), 한경면 고산리, 2023.6.3., 필자 면담.

104) 현○○b(여, 1958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6.13., 필자 면담.

(할머니들 망사리 이렇게 보면 알지. 나도 저 나이 되는 거 금방이고 그러면  
갈을 것 아니? 미역이랑 해삼이랑 전복이랑 담아주게 되지.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물질할 때 우리가 숫자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나갈 수  
있거든. 그분들은 또 머릿수 채워주면서 나름의 보답을 해. 덕분에 우리도 물  
질 나갈 수 있고. 서로 돕는 것이 되는 거야.)

제주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량이 적은 동료 해녀의 태왁망사리에 자신이 잡은  
해산물을 슬쩍 넣어주는 ‘계석’이라는 문화는 단순히 그날 어로 노동으로 채취한  
생산물을 평등하게 나눈다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물질이 서툰 애기해녀,  
몸이 아픈 해녀, 나이가 든 고령의 해녀에게 두루두루 상황에 맞춰 나눔을 하고  
또 단순한 셈법으로 주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제 역할을 부여  
하는 제주 사회만의 배려와 정을 보여주는 문화이다. 이 특성은 애기해녀가 중  
군, 상군해녀가 되고 나이가 들어 고령의 해녀가 되는 인생주기와도 닮아 있다.  
공동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나눌 수 있다는 차별 없는 포용력을 보여주는 해녀  
공동체 문화의 가치이며 ‘나눔정신’<sup>105)</sup>인 것이다.

계석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주 사회의 대표적인 나눔 문화인 반태우기와 비  
교할 수 있다. 상장례나 제사 때 음식(고기, 떡, 과일 등)을 이웃에 돌리는 일을  
반태우기라 하는데, 특히 노인이 있는 집이 우선시 된다는 게 특징적이다. 잔치  
에 온 사람들은 고깃반을 챙겨 오지 못한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누어준다.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누며 살아온 제주 나눔 문화는 공  
동체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특성은 해녀 문화에도 반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제주 해녀들이 공동물질을 하여 나온 수입을 마을에 기증한 학교바당, 이장  
바당과 반장바당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할망장, 노동과 삶의 공간

### 1) 할망장의 현대화

---

105) 황경근, “나눔 바이러스 2009, 제주 해녀의 서로 나누기 정신”, 서울신문, 2009.3.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10009013>]

오일장은 물물 교환과 정보 교환의 장소로서 역사적으로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었다. 1960년에서 1970년까지 면 단위의 장이 개설되었는데, 상인들의 하루 왕복 가능한 거리인 30리 내지 60리라는 공간이 체계화되어서 다섯 시장이 서로 겹치지 않게 오일 단위 순화방식으로 오일장이 열렸다.<sup>106)</sup>

시장경영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한국에서 전국 오일시장은 1950년~1960년대 성장기를 거쳐 1970년대에 절정기를 거치고 1976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되면서 생활방식도 크게 현대적으로 바뀌었고 유통업계의 다양화를 거치면서 또 19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은 침체기<sup>107)</sup>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 지역의 오일장은 1906년 윤원구 군수가 부임하여 민간의 물자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 읍내를 시작으로 삼양, 이호, 외도, 애월, 조천, 김녕, 세화, 서귀포 등지에 오일장을 개설한 것이 근대적 기원이 된다.<sup>108)</sup> 특히 상설 시장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오일장은 산촌과 어촌, 농촌과 도시 지역 간에 중요한 상품 중개 역할을 담당해 왔다.<sup>109)</sup> 과거 제주의 오일장은 아침 일찍 쪼다 오후에 접어들면 거의 닫아버리는 것이 특징이었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이러한 면은 농촌 지역 오일장의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sup>110)</sup>

현재 제주도의 오일장들은 지역 사회의 시장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재래시장, 전통시장이자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오일장으로, 조선시대 말엽에 활동했던 보부상들의 상거래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06) 정근호, 앞의 논문, 2011, 150쪽.

107) 한승철·황용진, 『제주 읍면지역 오일시장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15쪽.

108) 허진, 앞의 논문, 2007, 21쪽.

109) 유태복, 앞의 논문, 1998, 38쪽.

110) 허진, 앞의 논문, 2007, 29쪽.

<표 III-1 제주도 민속오일시장 연혁><sup>111)</sup>

이전일자	장 소
1968. 12월 이전	제주시 삼도동 관덕정, 건입동 탐동 주변
1969. 12. 22.	제주시 삼도2동 609-2(현 서사라 사거리)
1974. 12. 7.	제주시 용담1동 265(현 적십자회관 주변)
1982. 7. 2.	제주시 오라동 2450-2(현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주변)
1984. 2. 7.	제주시 연동 2369(현 신광초등학교 부지, 남녕고 주변)
1986. 10. 7.	제주시 연동 1965번지 외 7필지(현 제주일보사 동측)
1993. 5. 2.	제주시 건입동 533번지 외 27필지(사라봉공원 내)
1998. 11. 22.	제주시 도두1동 1212번지 외 17필지(현 부지)

<표 III-1>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연혁을 정리한 것이다. 제주시 민속오일 시장이 오일장으로 성립된 시기는 1905년경이며 이후 십여 차례에 걸쳐 여기저기 장소를 전전하며 영업을 해오다가 1998년 11월 현재의 장소에 자리 잡았다.<sup>112)</sup> 현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1212번지 외 17필지’를 활용하여 제주국제공항의 서편에 위치하여 있으며, 1132번 지방도 제주일주도로에 인접하여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sup>113)</sup>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는 ‘할머니장터’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시장 내 동측에 위치하여 만65세 이상인 할머니들이 자가 생산한 농작물 등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마련해준 장소이다.

할머니장터가 생긴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다. <표 III-1> 제주도 민속오일시장 연혁에서 드러나듯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여러 차례 옮기다가 1993년 5월 2일에 제주시 건입동의 사라봉공원지구로 다시 이전하였다. 행정 기록상의 시장 개설일도 동일하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달 7일부터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을 판매하러 나오는 할머니들을 위해 장터 내에 이백여 평을 구획해서 제공하기 시작

111) 허진, 앞의 논문, 2007, 29쪽, 표 재인용.

112)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search>].

113) 이용선·국승요·정은미·조경출, 「정기시장의 구조와 기능 변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07쪽.

하였다. 이것이 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하게 된다.<sup>114)</sup>

그러나 할머니장터가 운영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상인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면서 잠시 닫는 일도 발생하였다. 폐쇄 당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주오일시장 상인들의 모임인 번영회측이 제주시가 주선한 「할머니장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5월 건입동 소재 사라봉공원구역 남쪽 1만2천여평의 부지위에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일시장을 조성하고 ...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들을 위한 「할머니 장터」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오일시장 번영회측이 개설 1년만인 지난 2일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 「할머니 장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야채장터 옆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할머니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sup>115)</sup>

이러한 갈등 등을 해결하면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1998년 11월 22일에 현재의 장소인 제주시 도두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장 번영회에서는 본격적으로 할망장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할머니들에게는 임대료는 물론 월 13,000원 징수하는 시장 사용료도 받지 않아서<sup>116)</sup> 할망장에 나와 장사하는 할머니들은 말 그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일장은 전통 사회에서 공동체적 삶과 경제생활의 집결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 민속오일시장의 할망장은 격변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문화유산적 가치를 잘 이어받아 안정성, 편리성을 위해 공간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에 제주인들은 물질과 김매기 등의 일을 하기 위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자 아침 일찍 장에 와서 물건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오전에만 성시를 이루고 오후에는 파장하였다.<sup>117)</sup> 그래서 고정된 가게가 아니라 길거리에

114) 한국민속대백과 사전 [<https://folkency.nfm.go.kr>].

115) “할머니 장터로 제주오일시장 상인과 제주시 마찰”, 중앙일보, 1994.5.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82637#home>]

116) 이용선·국승요·정은미·조경출, 앞의 논문, 2007, 109쪽.

117) 송성대, 앞의 책, 1998, 145쪽.

서 팔고 가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전통시장이 변화한 것이다.

[사례3-20]

오일장이 옛날에 **사라봉에 이실 때부터** 제가 거기 담당행 일을 또 해나수다. 경행 잘 아는데 **원래는 할망장이 거기서도 이서난예**. 근데 그때는 문을 딱 만들어 열고 닫고를 저희들이 해나수다게. 경허당 **본격적으로 할망장터** 딱 만든거는 **여기 도두동으로 이전하명** 그때가 **1998년**이난 벌써 몇 년이과예. **할머니들이 길가에 앉앙 위험하게 물건 팔고 또 어르신들이난 굽영으네 물건 팔당 손님들이 지나가당 걸령 넘어지고 안전이 제일 문제여수다. 안전하게. 경허고 보기에도 어른들 길에 앉앙 물건 팔아가은 그것도 보기에 안 좋고. 장터안으로 들어오십사 상인회가 만들어줬주예. 근데 크게 보면 시청에서 만들어준 거주마씨. 임대료 어시 무료로 내어주는 일종의 배려공간이우다. 어르신들도 움직여 다니명 손수 일하시는거난 얼마나 좋으과.<sup>118)</sup>**

(오일장이 옛날에 **사라봉에 있을 때부터** 제가 거기 담당해서 일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원래는 할망장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문을 딱 만들어 열고 닫고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본격적으로 할망장터**라고 딱 만든 것은 **여기 도두동으로 이전하면서** 그때가 **1998년**이니 벌써 몇 년이예요. **할머니들이 길가에 앉아서 위험하게 물건 팔고 또 어르신들이니 굽으셔서 물건 팔다가 손님들이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지고 안전이 제일 문제였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보기에도 어르신들이니 길에 앉아서 물건 팔아가면 그것도 보기에 안 좋고. 장터 안으로 들어오십사 상인회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크게 보면 시청에서 만들어 준거죠. 임대료 없이 무료로 내어주는 일종의 배려공간이예요. 어르신들도 움직여 다니면서 손수 일하시는 거니 얼마나 좋아요.)**

[사례3-21]

사라봉에 있던 오일장이 1998년 도두로 이전하면서 할망장터라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크게 보면 시청이 담당하고 있고 임대료 없이 어르신들 일 할

118) 제주도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회장, 2023.6.7., 필자 전화인터뷰.

수 있는 곳이죠.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컸던 걸로 압니다.**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sup>119)</sup>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할망장은 한국에서 현대적으로 ‘복지장터’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sup>120)</sup> 불박이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변영회를 조직하여 시장을 운영하지만 무한경쟁으로 각자의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고 배려와 나눔의 공간을 마련하여 약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제주 사회의 배려와 나눔의 공간이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오일장과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고민하는 다른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도 할망장이 있는지 조사해보았고, 경상북도 문경시에도 할망장이 있었다. 할망은 제주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사용하는 할머니를 가리키는 방언이다.<sup>121)</sup> 국가명승 제32호 문경새재와 국가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이 있는 문경시 중심지에 자리 잡은 문경 전통시장은 1930년대 개설되었다. 현재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매월 2일과 7일에 열리는 오일장을 중심으로 할망장터를 운영하고 있다.<sup>122)</sup>

<표 III-2> 제주시와 문경읍의 할망장 비교

지역	제주시	문경읍
명칭	할머니장터	할망장터
개장된 년도	1998년	2019년
장날	매월 끝자리 (2일, 7일)	매월 끝자리 (2일, 7일)
자격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자리	선착순	선착순
자리 번호	번호 있음	번호 있음
매대 위치	변경 불가	변경 불가
상품 진열	상인이 조정 가능	정해진 위치 (노란 선)
호객 행위	가능	사양

119) 제주시청 민속오일시장부서 담당자, 2023.6.7., 필자 전화인터뷰.

120) 이은상, 목요세평 “전통시장 들여다보기(제주도편)”, 충청신문, 2020.7.22.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606580>]

12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네이버 사진, [<https://ko.dict.naver.com>]) 참고.

122) 한국농어촌공사, “할머니들의 자리가 있는 곳 문경전통시장”, 농어촌공사웹진, 2021.11.

[<https://www.ekr.or.kr/Kkrpub/webzine/2021/11/objective.html>]



제주와 문경 지역의 두 할망장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III-2>를 보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할머니장터와 문경 전통시장의 할망장터는 만65세 이상 지역의 할머니들이 상인이라는 점 외에도 동일한 부분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문경은 탄광촌으로 유명하던 곳이다.<sup>123)</sup> 과거 석탄 개발이 활발했으나 탄광이 폐광되면서 인구수가 감소하였다. 현재 문경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2018년~2019년까지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재건축되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때 도로에서 장사하던 할머니를 시장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할망장터를 마련하였다.

[사례3-22]

애초에 할머니들이 시장 주변 도로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길가이다 보니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 안전상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죠. 그게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공사를 하던 때니까 2019년도예요. 안전하게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 일종의 지역사회의 배려이죠. 더불어 시장의 이미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효과도 있습니다.<sup>124)</sup>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라는 공간이 단순하게 경제활동의 장소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가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할머니장터가 개장한 1998년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경상북도 문경시의 전통시장에 내 할망장터가 생긴 배경에도 이런 지역 사회의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있다.

## 2) 노동 공간 ‘시장’의 형성

시장은 돈과 물건의 교환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무형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시장에 관한 오랜 연구를 해온 정승모(1992)는 시장은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한데 묶는 끈’이라 했다.

123) 주영하·전성현·강재석, 『한국의 시장』, 공간미디어, 1996, 199쪽.

124) 문경읍 전통시장부서 담당자, 2023.6.7., 필자 전화인터뷰.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이나 혹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나와서 서로를 기다리곤 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시장 주변의 해안마을은 물론, 중산간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합세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장은 작은 지역사회 안에서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라 할 만하다. 시장은 물질적 욕구의 해결 공간이자, 나름대로 정신적 안도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sup>125)</sup>

할망장에 관해 조사하면서, 사회구조와 생활양식, 시장의 모습이 변해도 이 같은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한데 묶는 끈으로서의 시장의 역할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3-23]

**시장에 나오면 사람 구경도 하고 집 밭에서 손수 농사한 거 7정왕 팔아지고 얼마나 좋아.** 나이 먹었든 집이 7만 이서봐봐. 치매 걸려 치매. 여기 시장에 오면 앉았 물건도 팔주만은 아이서부터 우리 같은 할망들까지 다 봐지고. 할망들이영 이거 저거 말 곧당보든 금방 시간도 가부러.<sup>126)</sup>

**(시장에 나오면 사람 구경도 하고 집 밭에서 손수 농사한 것을 가져와서 팔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나이 먹었다고 집에 가만히 있어 봐봐. 치매 걸려 치매. 여기 시장에 오면 앉아서 물건도 팔지만은 아이에서부터 우리 같은 할머니들까지 다 볼 수 있고. 할머니들하고 이것저것 말 하다보면 금방 시간도 가버려.)

또 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장소이며 가장 민속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할망바당의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할망장에서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시장은 소외된 사람들이 외롭고 유예된 삶에서 벗어나 일상의 공간 속에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역 사회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노약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년층의 고독감을 해

125)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18쪽.

126) 김○○(여, 1946년생),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023.6.12., 필자 면담.

소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이벤트성 장터가 개최되기도 한다.

[사례3-24]

저기 **사라봉에 이실 때부터** 나왕 장사했주. 그때는 막 이추룩까지 갖추진 안 해났주만은 **그때도 해나서**. 여기 도두로 이사왕으네 크게 영 **할망들 여럿이 모영 일허게 됐지. 시장에 나이든 할망들 나왕 일허게 해주는거 이게 요즘 세상에 힘든거라.** 임대료도 안 받았 무료로 자리 내준단계이 막 고마운거주. 여기서 일허멍 자식들 공부시키고 살아져서.<sup>127)</sup>

(저기 **사라봉에 있을 때부터** 나와서 장사했어. 그때는 이렇게까지 갖추진 안 했었지만은 **그때도 했었어**. 여기 도두로 이사 와서 크게 이렇게 **할머니들 여럿이 모여서 일하게 됐지. 시장에 나이든 할망들 나와서 일하게 해주는 거 이게 요즘 세상에 힘든 거야.** 임대료도 안 받아서 무료로 자리 내준단 것이 많이 고마운 거지. 여기서 일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살아졌어.)

[사례3-25]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들 일할수 있게 해준 시장이 잘도 고마우매.** 할망이 뭐 해줄 수 이신거는 그자 속이지 았앙으네 밭이서 내가 손수 농사한거 7정 왕 팔멍 감사함을 갚는거주. 좋은 물건을 내놔야 손님들도 사가멍 좋아하고 서로가 좋은거라.<sup>128)</sup>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들 일할 수 있게 해준 시장이 많이 고마워.** 할머니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속이지 았고 밭에서 내가 손수 농사한 것 가져와서 팔면서 감사함을 갚는 거지. 좋은 물건을 내놔야 손님들도 사 가면서 좋아하고 서로가 좋은 거지.)

공동체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은 할망장에서 만난 여러 구술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배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할망장이 제주 사회에서, 더 넓게 한국 사회에서 과거부터 이어온 사회적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공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할

127) 강○○(여, 1945년생), 제주시 오라동, 2023.6.12., 필자 면담.

128) 한○○(여, 1942년생), 제주시 도두동, 2023.4.12., 필자 면담.

망장의 할망상인들 역시 노년층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시장의 공동체적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

[사례3-26]

여기 이신 것들 **우리 집 밭에서** 다 손수 직접 키워 가정오는거라. 경허난 이게 **근대**라는건데 간이영 눈에도 좋은디 콩가루 방으네 국 끓여 먹어봐봐 잘도 맛조으매. **옛날에 집집마다 근대 행으네 먹어나서.** 좋은거 먹영 사난 건강했주.<sup>129)</sup>

(여기 있는 것들 **우리 집 밭에서** 다 손수 직접 키워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대**라는 건데 간이랑 눈에도 좋은데 콩가루 넣어서 국 끓여 먹어봐봐 아주 맛이 좋아. **옛날에 집집마다 근대 해서 먹었었어.** 좋은 것 먹고 사니 건강했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할망장에서는 대부분이 나물류를 판매하고 있다. 할망상인들이 직접 채취하거나 생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직접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지역의 오일장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광양시 오일장에서 나물류 판매자들의 연령은 61세 이상이 93퍼센트 이상으로 거의 전부였다.<sup>130)</sup> 전통시장에서 산채류를 판매하는 노년층들이 전통적인 산채의 종류나 이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산채를 이용한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 산채요리 문화의 보존과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아직 산채류 문화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시에 노년층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산채요리 문화도 소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131)</sup>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할망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물건이 나물류라는 점에서 제주 지역 역시 전라남도 광양시 오일장과 비슷한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필자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만난 면담자들은 판매하는 나물이 본인이 손수

129) 한○○(여, 1942년생), 제주시 도두동, 2023.4.12., 필자 면담.

130) 오대민·박종수·조자용·박윤점·박수민·허복구, 「광양지역 오일장에서 산채 자원의 유통 실태 분석」, 2010, 87쪽.

131) 오대민·박종수·조자용·박윤점·박수민·허복구, 위의 논문, 2010, 88쪽.

가꾸고 키운 농작물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어떻게 먹을 것인지 이용법 또한 자세 히 알려주었다. 제주 할망들이 제주 지역의 나물류를 보존하며 관련 지식을 전수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 해녀와 마찬가지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상품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 다. 한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식재료가 수천, 수만 킬로미터의 장거 리를 이동하여 식탁에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local food)는 ‘가까운 먹을거리’로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일구는 식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역 농산물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구조를 변 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132)</sup>

제주 할망들은 우영팻(집 주변 작은 텃밭을 가리키는 제주어)에서 손수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것을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지역 농산물인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보답한다. 이 우영팻은 토종종자의 공간이 기도 하다. 따라서 할망장은 로컬푸드 운동과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나 식 재료를 다시 검토하는 운동인 슬로푸드(slow food) 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가치는 앞서 다룬 할망바당의 공동체 문화의 의의와 일맥상통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오일장에서 이동식 행상 노점은 소자본의 연로한 농촌의 고령 층에게 주요한 생계수단이 된다. 즉, 할망장은 전통시장이 가지는 고용 창출 및 직거래의 장 형성, 지역커뮤니티의 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sup>133)</sup> 할망장의 상인들은 로컬푸드와 슬로푸드 농작물의 생산 과 판매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교류, 제주 문화의 홍보,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과 전수 기능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과 장터의 젊은 상 인들에게 경제적 교환 이상의 가치를 전할 수 있다. 공동체의 배려에서 탄생한 할망장이 지역 사회에 전통문화유산을 되돌려주는 긍정적인 선순환이자 영향력

132) 자기 지역내 50킬로미터이내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Halweil, 2006), (김자경,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주도민의 식생활 현황과 먹을거리 의식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20(2), 2010, 121쪽 재인용.)

133) 정금호, 앞의 논문, 2011, 151쪽.

이 된다.

[사례3-27]

집 근처 이마트여 롯데마트여 이서도 오일장날이면 빠지지 않고 왔수다. 할망장을 자주 오는 편인데, 오면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그게 좋아서 계속 오는거 같아예. **저희 친정엄마는 해녀였는데 물질하명 잡은거 옛날에 동문시장 모퉁이에 앉앙 파셔나수다.** 자식들이 나이도 드시고 하지 말랜해도 평생 물질하고 우영팻이서 소일거리 허멍 쉬지 았앵 사신 분이랴. 여기 할망장에 나이 많이 드신 어른 보난 어머니 생각이 더 낭으네 가끔은 안 살 것도 사긴해마씨. 근데 가격 싸고 인심 좋고 아깝지 안허여.<sup>134)</sup>

(집 근처 이마트 롯데마트 있어도 오일장날이면 빠지지 않고 와요. 할망장을 자주 오는 편인데, 오면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그게 좋아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해녀였는데 물질하면서 잡은 것을 옛날에 동문시장 모퉁이에 앉아서 파셨었어요.** 자식들이 나이도 드시고 하지 말라고 해도 평생 물질하고 텃밭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쉬지 않고 사신 분이예요. 여기 할망장에 나이 많이 드신 어른 보니 어머니 생각이 더 나서 가끔은 안 살 것도 사긴 해요. 근데 가격 싸고 인심 좋고 아깝지 않아요.)

[사례3-28]

요새 하도 편하고 빠르게만 돌아가는 세상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 그래서 시장보다 큰 마트들로 많이들 가고. 스마트폰 하나면 눌러서 집앞까지 물건들 오는 세상이난. 다른건 모르겠고 저도 지금은 40대 후반이라 할망이 된다는게 먼 이야기 같지만 언젠가는 늙고 나이가 들지 았으쿠과. **나이가 들앵 나도 저기 할망장에 강으네 물건 팔멍 노년을 보내고 있을지 누가 알아.** 할망장이 오래 잘 유지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서믄 해마씨. 인심도 후하고 여기 오면 좋은 물건들도 사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줍써.<sup>135)</sup>

(요즘 많이 편하고 빠르게만 돌아가는 세상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걸 원

134) 강○○(여, 1962년생, 시장 고객), 제주도 노형동, 2023.5.17., 필자면담.

135) 고○○(여, 1977년생, 오일시장 상인), 제주도 아라동, 2023.5.17., 필자면담.

해. 그래서 시장보다 큰 마트들로 많이들 가고. 스마트폰 하나면 놀러서 집 앞까지 물건들 오는 세상이니. 다른 건 모르겠고 저도 지금은 40대 후반이라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먼 이야기 같지만 언젠가는 늙고 나이가 들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 나도 저기 할망장에 가서 물건 팔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을지 누가 알아.** 할망장이 오래 잘 유지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면 해요. 인심도 후하고 여기 오면 좋은 물건들도 사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주세요.)

할망장에서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덤을 주고 받는 맛이 있어 흥정이 쉽게 이루어진다.<sup>136)</sup> 대형마트나 슈퍼마켓같이 정찰제로 물건과 돈의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흥정을 통한 열린 가능성이 존재하는 전통문화유산의 공간이다. 이러한 할망장은 여전히 노인들이 자립성을 가지고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지역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빚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3) 제주 공동체의 일상 공간에서의 노동

생활문화는 특정 장소(공간), 시간(시대)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으로 한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특정 시기의 생활문화를 읽어내어 과거와 현대를 비교하여 사회의 쇠퇴, 변용, 전승의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에 유용하다.<sup>137)</sup> 생활문화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특정 장소인 공간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경제적 생산 활동의 장에서의 취업노동과 노동력 재생산을 수행하는 가사 및 양육노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성 노동은 경제활동영역인 취업노동과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력 재생산 영역인 가사 및 양육노동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sup>138)</sup>

또한 일상 공간에서의 노동은 크게 집안 내 노동과 집안 밖 노동의 두 가지로

136) 정영신, 『한국의 장터』, 눈빛출판, 2012, 459쪽.

137) 문순덕, 「제주 여성생활문화사의 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과 예술』, 25, 2018, 234쪽.

138) 김준표, 「제주지역 여성노동의 유형별 비교연구」, 『탐라문화』, 60, 2022, 307~308쪽.



나눌 수도 있다. 정광중(1992)의 분석에 따르면, 집안 내의 노동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오늘과 내일 또는 며칠 안에 필요한 의식주 관련 노동이라면, 들과 밭과 바다 등 집 밖의 노동은 가까운 미래나 먼 장래에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이 된다.<sup>139)</sup>

제주도는 ‘섬’이라는 제한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해녀 노동과 밭농사 등 여성 노동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전근대 사회에서, 해방 이후 제주 4·3사건 등의 역사적 흐름을 거치며 근대까지 제주도는 ‘여다(女多)의 섬’으로 명명되며 지역 여성의 노동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sup>140)</sup> 과거 제주 사회에서는 매일 아침 해안가 야박들이 해산물을 팔러 중산간지역으로 다녔고, 해물 값으로 곡식을 받았다고 한다.<sup>141)</sup>

전통적으로 제주 할망들에게 밭과 바다, 시장, 마을길, 빨래터 등 일상생활의 장소들이 모두 노동의 장소였다. 즉, 일상 공간과 노동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밭과 바다에서 농사하며 밭작물을 일구고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고, 마을길에서 참깨와 같은 곡식을 말고 털고, 물이 귀하던 시절에는 물을 길어오고 빨래터로 나가 빨래를 하는 등 생계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다.

제주 사회에서는 수놓음에 의해 집단을 이루어 행하는 빈번한 김매기와 바다에서의 무리를 지어 행하는 나잠어로, 수시로 물 걷기 언제 어디서나 여성들이 있었다. 산과 밭은 물론 오일장이나 일상 상점가 등의 장터거리에서도 여성들의 노동이 행해졌다. 제주 여성들의 작업 공간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부에서처럼 집안만이 아니라 집 밖, 그것도 동네 밖에까지 확장되어 있었다.<sup>142)</sup>

이러한 제주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재생산활동과 관련된 노동경험과 그 특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2007)에서 노동공간의 특성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제주 여성들의 노동공간은 비교적 자연환경의 속성을 잘 이용한 공간이었다. 둘째, 거리적 관점에서 볼 때 주거지로부터 불과 1~2

139) 정광중, 앞의 논문, 1992, 18쪽.

140) 강경숙·김준표, 「제주도 지역개발시기 제주 여성의 노동과 지위」, 『탐라문화』, 69, 2022, 220쪽.

141) 허남춘, 앞의 논문, 2005, 4쪽.

142) 송성대, 앞의 책, 1998, 394쪽.

킬로미터 이내에 거의 존재하였다. 셋째, 다음으로 이어지는 노동과 활동을 위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는 것이다.<sup>143)</sup>

제주 여성들의 노동공간은 아주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화하면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이 닿고 발길이 머무는 장소, 그리고 앉아 있는 장소나 공간이 곧 노동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제주 지역의 독특한 풍경으로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 일상공간이 곧 노동공간이라는 점에서 전근대적 사회에서, 근대 사회에서도 제주 여성들은 한시도 손에서 일거리를 놓지 않는 “맹렬 여성”이었다.<sup>144)</sup> 제주 여성들은 일상공간에서 경제활동 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노동에서 노동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전통사회의 제주 여성들이 무조건 일만 하는 기계적인 인간은 아니었으며 해녀 문화나 제주 여성문화에 남아 있듯이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려고 했다.<sup>145)</sup>

시대가 바뀌면서 제주 여성들의 노동 공간 역시 달라졌고 노동경험에서도 많은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노동을 제주의 여성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다시금 전통사회의 제주 여성들이 특히 두각을 나타내며 행하던 노동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노동공간의 형성에 따른 다양한 특성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46)</sup>

이 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할망바당과 할망장이라는 공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상적 노동공간이다. 이 노동공간에서 해녀 할망들은 먹고살기 위한 생업을 하고 지역적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며 또 사회적으로 상호 협력하며 세대를 이어 배려와 나눔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할망바당이라는 공간과 관련하여 제주 해녀들을 면담하고 노동 현장을 방문하여 이들의 생애담을 들었고, 할망장이라는 공간과 관련하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할망장의 할망상인을 면담해 이들의 생애담을 채록하고 노동 현장을 조사하였다.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구술 채록하였다.

14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2007, 161쪽.

14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의 책, 2007, 88쪽.

14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의 책, 2007, 161쪽.

14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의 책, 2007, 163쪽.

제주 지역의 할망바당과 할망장이라는 공간에서 제주 여성은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배려하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제주 해녀 문화의 수평적이고 평등적인 배려와 나눔은 할망바당에서 이어지고 육지에서는 다시 할망장이라는 공간에서 그 가치가 공유되고 전승되고 있다.

## IV. 할망바당과 할망장이 가지는 현대적 가치의 의미

역사적으로 제주 사회와 경제, 지리적 공간은 변화해왔고 제주인들의 노동경험, 삶의 방식과 일상공간과 문화 또한 이에 맞춰 달라져왔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는 단순히 해녀들의 지식과 기술, 또는 문화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사람,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것들이 모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sup>147)</sup> 또 전통시장은 역사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물건이 있는 유통의 중심 기능을 담당해온 공간이며 볼거리가 있고 교류와 만남의 장소였다. 특히 농촌의 오일장은 오일 단위의 순회 방식으로 개설되어서 농민이 수요자이면서 공급자로서 물품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다.<sup>148)</sup>

따라서 제주 지역의 바다 할망바당과 전통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할망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노동경험을 통해 제주 지역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오늘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짚어보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 1.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자기 주도성

오늘날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저하됨에 따라 인류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노년기를 인생의 ‘남는 여분의 시간’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sup>149)</sup>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은 21세기 대다수의 국가에서 당면하게 될 공통의 도전이자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150)</sup>

고령화(高齡化, aging)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

147) 고미, 앞의 논문, 2023, 2쪽.

148) 정금호, 앞의 논문, 2011, 149쪽.

149) 지은정, 「통합적·체계적 노인 사회활동 만들어야」, 『월간 공공정책』 163, 2019, 15쪽.

150) 이희성, 권순호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10쪽.

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sup>151)</sup>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지방 소멸’로까지 불리는 지방인구 감소의 위기,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60년에는 전 세계 가운데 한국이 고령자 비율이 2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고령화 문제는 ‘노인이 많아지는 것’ 이상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인구감소 문제가 인구 사회경제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인구감소 문제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확산되기 때문이다.<sup>152)</sup>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공개한 주민등록인구 현황(등록 외국인 제외)을 보면, 제주 지역 43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23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노인 인구의 고령화율은 2017년 말 14.17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6년에 제주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53)</sup> <표 IV-1>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퍼센트 이상 지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표 IV-1> 고령화의 진행 과정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	14% 이상	20% 이상
정 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 사회 노인들의 경제 활동인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노동 경험과 공동체의 배려 문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주의 노인들은 자력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여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도 경제활동 생산자로서 역할을 손에서 결코 일을 놓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한 노인들의 현실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은 물론, 노인복지로 인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서구 사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sup>154)</sup>

이런 문화는 제주의 노인들의 열정적인 내리사랑으로 가능하였다. 노인들이 주

151) 이척희·노재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법적 대응 방안」, 『산업진흥연구』, 산업진흥원, 2020, 73쪽.

152) 이상림, 「지역의 고령화: 사회구조적 전환으로서 고령화」, 『지식의 지평』, 33, 2022, 11쪽.

15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 2017.12.31.

154) 송성대, 앞의 책, 1998, 344쪽.

면서도 품앗이 내지 반대급부라 할 치사랑을 요구치 않는, ‘내 몸이 움직이는 한 나는 내가 알아서’ 라는 달관의 인생철학을 가진 자존적인 삶을 사는 냉철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생활양식이 가능하다. 제주의 여성, 할망과 어머들은 험한 바다와 거친 땅을 일구기 위해서 억척스럽고 바지런하게 살아야 했고 노동의 연속인 모진 삶을 견디기 위해서 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억척스러움과 바지런함은 곧 ‘여다의 섬’ 제주 여성들의 이미지가 되었다.<sup>155)</sup>

[사례4-1]

바당에 들어가면 흠착 할 때가 있주. 무사어서. **힘들게 허당도 물건 보민 돈 이난 다 행나와지주게.** 경허멍 꾸려나간게 밭도 사고 집도 사멍 자식들 키우멍 살앙와진거라.<sup>156)</sup>

(바다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왜 없어. **힘들게 하다가도 물건 보면 돈이니 다 해서 나오게 되지.** 그렇게 하면서 꾸려나간 것이 밭도 사고 집도 사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온 거야.)

[사례4-2]

바당에 들어강 숨 춤아가멍 견디고 살아온 고생. 말로 다 못허주만은 살당 보민. **살암시민 살아지는거주게.**<sup>157)</sup>

(바다에 들어가서 숨 참아가면서 견디고 살아온 고생. 말로 다 못하지만 살다보면. **살아가다 보면 살아지는 것이지.)**

[사례4-3]

**밭농사만 행으네 자식 6남매 키왕 어떻사느니. 놈의 집 일도 하고 이것저것 다했지.** 자식들 보멍 살아오난 살아왔주. 고생스러워도 자식들 잘 커주난 이제는 보람이라.<sup>158)</sup>

**(밭농사만 해서 자식 6남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 남의 집 일도 하고 이것**

155) 김순자, 앞의 책, 2016, 63쪽.

156) 현○○b(여, 1958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4.11., 필자 면담.

157) 현○○c(여, 1940년생), 성산읍 온평리, 2023.4.25., 필자 면담.

158) 한○○(여, 1942년생), 제주시 도두동, 2023.4.12., 필자 면담.

저것 다했지. 자식들 보면서 살아오니 살아왔지. 고생스러워도 자식들 잘 커주니 이제는 보람이야.)

김순자(2016)는 제주 바다에 머물지 않고 경제활동으로 타지역으로 출가 물질을 다닌 제주 잡녀들의 강인하고 바지런한 삶과 정신이 오늘날 제주 문화의 고갱이가 되고 있다고 본다.<sup>159)</sup> 또 ‘억척스럽다’, ‘부지런하다’, ‘강인하다’, ‘무뚝뚝하다’는 어휘가 멀게는 조선시대부터 가까이는 일제강점기와 제주 4·3의 격랑을 이겨낸 제주 여성들에게 붙는 말들이다.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일제강점기와 4·3사건을 겪은 제주인들에게, 또 해녀 할망에게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말이다. 해녀인 경우, 물질 작업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인 만큼 삶은 싸워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었고, 이를 양인실(2022)은 순응과 경외(敬畏)의 아비투스<sup>160)</sup>로 해석한다.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고난의 삶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주어진 삶’, 곧 노동에 대해 충실하려고 하는 자각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sup>161)</sup>

[사례4-4]

자식들이야 어머 걱정행 이젠 그만 물질헛써 하지. 겐디 **난 몸이 허락하는 한 바당에 들어갈꺼라. 바당은 내 업이자 삶이라.** 그래서 놓고 싶지 않은거라. 자식덜신디 손 벌리멍 살멍 짐 되고 싶지 안 허여. 그자 내 몸 하나 나가 잘 추스령 사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거라.<sup>162)</sup>

(자식들이야 어머니 걱정해서 이젠 그만 물질하세요 하지. 그런데 **난 몸이 허락하는 한 바다에 들어갈 거야. 바다는 내 업이자 삶이라.** 그래서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서 살면서 짐 되고 싶지 않아. 그저 내 몸 하나 내가 잘 추스려서 사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야.)

[사례4-5]

159) 김순자, 앞의 책, 2016, 63쪽.  
160) 양인실, 앞의 논문, 2022, 48~49쪽.  
161) 제주도,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 8, 2001, 215쪽.  
162) 현○ob(여, 1958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4.11., 필자면담.



이 육지분들은 우리가 육지에 물질허래 강 보면은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하면은 이 부모들은 딱 손을 놔. 손을 놔서 애기들 벌어진 걸 필요하면 쓰고 허주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특히 이 촌에 사람들은 될 수 이시민 애기덜신티 부담주지말앙 손 벌리지 말앙 살자 이거주께.<sup>163)</sup>

(이 육지분들은 우리가 육지에 물질허러 가서 보면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하면은 이 부모들은 딱 손을 놔. 손을 놔서 애기들 벌어진 걸 필요하면 쓰고 허지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특히 이 촌에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애기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손벌리지 말고 살자 이거지.)

[사례4-6]

나라에서 주는 거 받으멍 자식들 주는 거 받으멍 살자 이추록들 생각하민 아주 잘못 하는거라. 건강행 움직여 다녀지민 일하멍 살아사 사는거주. 나이 먹영 넘어갔덴 그자 그거 받았만 살고 말만 하민 안돼. 남의 밭이라도 열심히 강으네 벌면서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들 상줘야지. 아들딸 다 이서도 혼자만 이시민 집세 주고 김치 주고 그런 거 보민 정치하는 사람덜 욕을 안 할 수가 어서.<sup>164)</sup>

(나라에서 주는 거 받으면서 자식들 주는 거 받으면서 살자 이렇게들 생각하면 아주 잘못하는 거야. 건강해서 움직여 다녀지면 일하면서 살아야 사는 거지. 나이 먹어서 넘어갔다고 그저 그거 받아서만 살고 말만 하면 안 돼. 남의 밭이라도 열심히 가서 벌면서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들 상 줘야지. 아들딸 다 있어도 혼자만 있으면 집세 주고 김치 주고 그런 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제주인이 자립정신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제주 노인들이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임종시까지 자력으로 삶을 살았던 무의기개의 자유정신에서 그 원인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165)</sup> 스스로가 원하여 자식들과 별거하면서 생산과 노동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sup>166)</sup>

163) 강○○(여, 1943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4.11., 필자면담.

164) 한○○(여, 1942년생), 제주시 도두동, 2023.4.12., 필자면담.

165) 송성대, 앞의 책, 1998, 392쪽.

166) 송성대, 앞의 책, 1998, 393쪽.

## 2. 지역사회의 공존과 공생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다. 현대화, 도시화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기술과 지식 등의 능력과 경험을 비능률적이고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배척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당연히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저하되었다. 즉,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퇴직 후 노인들의 소득 감소 또는 중단으로 초래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노인들은 자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젊은 세대가 경제문제나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노인 부양을 기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sup>167)</sup>

노인복지란 모든 노인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욕구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계획에 의해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 활동을 말한다.<sup>168)</sup> 그러나 노인을 약자로만 취급하면 노년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노인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나 개인이 특정 그룹 내의 사회적 통합에 필수적이면서도 다른 그룹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으로 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sup>169)</sup> 김태준(2010)은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건강과 근로의 배제, 그리고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배제 등이 노인 소외를 가져오고 노인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70)</sup>

배민영과 김신열(2022)의 연구 「사회적 배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노인이 사회적 배제에 취약

167) 이희성, 권순호, 앞의 논문, 2020, 12쪽.

168) 이희성, 권순호, 앞의 논문, 2020, 13쪽

169) Hilary Silver.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pp.531~578(배민영·김신열, 「사회적 배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7(3), 2022, 49쪽 재인용).

170) 김태준,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2010(배민영, 김신열, 위의 논문, 2022, 49쪽 재인용).

하다고 보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노인 우울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지지와 지역 사회의 배려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노인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생산과 경제적인 주체가 되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인구가 생산과 경제의 주체가 되어 자기효능감을 얻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인의 사회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제주 사회가 특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sup>171)</sup>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현재, 제주 여성 노인들의 경제 활동인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노동 경험과 생활문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해진다.

외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핀란드도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선 핀란드 정부는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였다. 그러자 노인들의 자살률이 치솟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의 산물로 로푸키리(Loppukiri)가 만들어졌다.<sup>172)</sup> 로푸키리는 면적 450평방미터 정도의 작은 공간에 58가구 69명이 거주하는 공동체 주택이다. 공동체 주택이라는 공간이라는 점과 이 공동체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냈고 해당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도왔다는 점<sup>173)</sup>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행정기관과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만든 고령화 시대 배려의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외국 사례처럼 지역의 특색과 전통문화를 살려 노인들이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하며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지역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 수동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인인구가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171) 지은정, 앞의 논문, 2019, 15쪽.

172) 김상욱, [핀란드 아라비안란타 '로푸키리' :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동체 삶] 멋진 유종의 미를 장식하려는 마지막 질주 노인복지예산 대폭 삭감에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다, 『월간 주민자치』 48, 2015, 125쪽.

173) 김상욱, 앞의 논문, 2015, 125쪽.

지역사회의 배려가 초고령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4-7]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이 일할수 있게 시장에 이추룩 만들어 준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추룩 배려해준건 고마움으로 살고 이서. 고만 앓아들서 받는 돈도 아니고 직접 움직여 다니명 손수 벌 수 있게 해준거난 그게 최고지. 움직여 다니명 건강도 챙기게 되고 손주들 오민 용돈도 내가 번 돈으로 챙겨주고 그게 사는 낙이라.<sup>174)</sup>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시장에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은 쉬운 게 아니야. 시장에서 이렇게 배려해준 건 고마움으로 살고 있어. 가만 앓아 있으면서 받는 돈도 아니고 직접 움직여 다니면서 손수 벌 수 있게 해준 거니 그게 최고지. 움직여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게 되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내가 번 돈으로 챙겨주고 그게 사는 낙이야.)

[사례4-8]

나이든 할망이 깊은디 들어강 물질도 이젠 힘들어. 젊을 때 잘해난 사람이 어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어쩔 수 어서. 그게 사람 몸이주. 겐디 이 할망 바당이 이시난 경해도 ㄱ치 들어강 물질도 하고 옛날추룩 많이는 못해도 경해도 물질행 가정 나오는 게 이서. 나이 들엇덴 집이만 이서봐봐. 건강허던 사람도 아플꺼라. 치매걸리매. 게난 이 바당은 그냥 들어강 물질만 허는게 아니라. 평생 내가 살아온 곳이고 몸이 움직여질 때까지 하멍 건강하게 물질하고 싶으매.<sup>175)</sup>

(나이든 할머니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질도 이젠 힘들어. 젊을 때 잘했던 사람이어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어쩔 수 없어. 그게 사람 몸이지. 그런데 이 할망바당이 있으니 그래도 같이 들어가서 물질도 하고 옛날처럼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물질해서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 나이 들었다고 집에만 있어 봐봐. 건강하던 사람도 아플 거야. 치매 걸려. 그러니 이 바다는 그냥 들어가서 물질만 하는 게 아니야. 평생 내가 살아온 곳이고 몸이 움직여질 때까지 하면

174) 한○○(여, 1942년생), 제주도 도두동, 2023.4.12., 필자 면담.

175) 강○○(여, 1943년생), 서귀포시 보목동, 2023.6.13., 필자 면담.

서 건강하게 물질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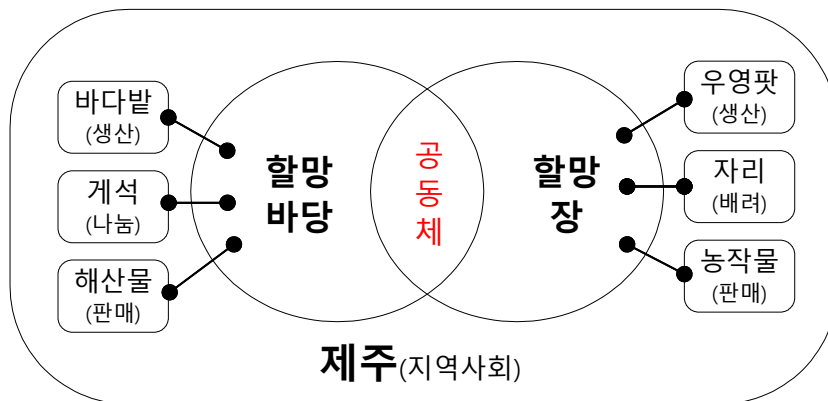
[사례4-9]

우리 어머 고생 많이 해수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걱정도 되고 어머신디 이제 물질 그만헝서 하고파도 못 허고. 당신이 움직여 다니멍 하시는건데 그만 허라 해도 어머이 일 안행 7만시민 그게 더 병날거 닙으난. 그냥 안전하게 물질헝으네 건강해시른 하는게 바램이우다.<sup>176)</sup>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당연히 자식으로서 걱정도 되고 어머니에게 이제 물질 그만하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당신이 움직여 다니면서 하시는 건데 그만하라 해도 어머니가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병날 것 같으니. 그냥 안전하게 물질해서 건강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위의 사례에서 잘 보이듯이 필자가 만난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면담자들은 노인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자와 노인에 대한 제주의 전통적인 배려의 문화가 초고령사회를 앞둔 제주 지역 사회에서 여전히 가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 사회에서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공동체의 양상을 도식으로 그려 정리하면 아래 <그림 IV-11>과 같다.



<그림 IV-11>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공동체 양상

176) 강○○(남, 1982년생, 보목동 현○○b 해녀 자녀), 서귀포시 동홍동, 2023.4.11., 필자 면담.

<그림 IV-11>에 드러나듯 제주 할망바당과 할망장이라는 배려의 공간은 생산과 나눔, 판매가 어우러지는 장소로 노인이 생산과 판매에서 경제적인 주체가 되는 곳이며, 제주의 전통적 가치가 오늘까지 이어져 현대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공간이다.

할망바당이라는 바다밭의 공간에서는 해산물을 생산하고 계석이라는 나눔과 할망바당의 배려를 통해 제주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할망장은 우영팻이라는 공간에서 생산한 토종 농작물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배려를 전통 생태지식의 보존과 전승으로 되돌려주어 환경과 공동체 의식을 재형성한다. 이런 전통문화유산과 공동체 의식은 근대에도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덕목이다.<sup>177)</sup>

다른 집단들처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제주 해녀 공동체는 계석과 할망바당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끊임없이 바다밭을 가꾸며 공동체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할망장에서는 우영팻에서 생산한 농업기술이 발전하며 사라져가는 토종종자 농작물을 판매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전통생태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배려로 받은 생업의 공간에서 그 책임 이상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대와 대를 이으며 선순환하는 공동체의 양상이다. 제주 사회가 여전히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특히 공동체가 강조되는 것은 공동선이 무시되고 공동체 정신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sup>178)</sup>

제주 지역의 바다와 전통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할망바당과 할망장에서 살아가는 개개인 해녀 할망들의 노동경험과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양상은 단순한 개인 생애사의 해석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경험은 주체성을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경험이 실천행동과 감정, 행위에 대한 성찰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sup>179)</sup> 경험을 통한 주체성의 발현이라는 근거로 제주

177) 허남춘,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1, 2007, 367쪽.

178) 김의수, 「한국 사회와 공동체」, 『사회와 철학』, 2001, 207쪽

해녀와 할망들이 이야기하는 할망바당과 할망장에서 문화유산적 가치에 주목하고 공동체적 양상을 제고할 수 있다. 제주 여성 개인의 주체성과 여성 공동체가 일궈낸 배려와 나눔은 제주 사회의 중요한 뿌리가 되어왔고 여전히 중요하다.

일하며 사는 삶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근대 사회에서 생산과 판매, 노동이 용이하지 않은 노년층은 소비자와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서의 역할만이 주어져 열등한 계층으로 보이기 쉬워진다. 이런 편견은 노인들이 일할 수 없게 만들고 경제 행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근대 사회의 폐단을 잘 드러낸다.

할망바당과 할망장은 노인들에게 생산과 판매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들이 강한 제주 여성상 그대로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

179) 유철인, 『여성 구술 생애사와 신세타령』, 민속원, 2022, 169쪽(양인실, 앞의 논문, 2022, 62쪽 재인용).

## V. 결론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척박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구분이 따로 없이 노동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나 서로가 서로를 돕는 수눌음의 문화도 자연스레 발달하였다. 거친 환경이야말로 제주 여성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한 축이 된 이유이다. 이것이 가정과 더 나아가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 주체자로서도 제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와 미디어에서 주목받은 진취적이고 강인한 제주 여성의 이미지만이 아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고되고 힘겨운 삶의 경험과 그 무게를 읽어내고, 또 해녀와 할망의 생애사가 보여주는 주체성과 자립성에 내포된 심층적 의미 그리고 이들의 노동경험과 생활에 농축된 제주 공동체의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살펴보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주 할망바당과 할망장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해온 제주 해녀 할망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노동경험과 공동체적 삶을 통해 지방소멸과 고령화, 저출생 문제로 위태로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았다.

1장에서는 해녀와 오일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 구술 연구방법론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맞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앞의 1장에서 정리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필자가 제주도를 동서남북 네 지역으로 구분해 조사한 제주 해녀와 할망의 구술 생애사 자료를 개괄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제주 해녀와 할망의 노동경험과 생활양식을 통해 제주 지역 고유의 공동체의 양상과 의미를 할망바당과 할망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가 사회적 이슈가 된 한국 사회에서 제주 여성 공동체를 통해 노령인구가 신노년을 자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주 할망의 삶에 담겨 있



는 다양한 경험은 단순한 개인 생애사로 해석이 머무를 것이 아니다. 그 삶 속에서 일궈낸 주체성과 자립성, 배려와 질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은 제주 사회의 중요한 뿌리이다.

할망바당이라는 공간에서는 제주 해녀의 노동경험과 제주 해녀 공동체의 나눔의 문화를 듣고, 할망장이라는 공간에서는 할망장의 할망상인을 만나 이들의 노동경험과 전통시장의 변화에 맞춰 현대화된 공동체의 배려의 문화를 살펴보았다. 제주 지역의 바다와 전통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고령자들은 고립되고 소외된 노인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배려와 나눔이 바다에서는 할망바당으로 이어지고 육지에서는 할망장이라는 공간으로 이어졌다.

시대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21세기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가는 제주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 활동인 할망바당과 할망장의 문화는 중요하다. 노인들이 자립성을 가지고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역 사회의 배려야말로 초고령사회가 수용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닌 노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초고령화 시대 속 진정한 복지임을 할망바당과 할망장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지역 해녀와 해녀 공동체에 대한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의 노동경험과 공동체의 양상을 생활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대적인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 부분의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 해녀와 전통문화에 관한 문헌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구술사는 기록자료로서 문헌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과거의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와서 역사가 되게 할 수 있다.<sup>180)</sup> 제주 해녀와 할망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대해 증언하는 생애담은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 연구가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선 한국 사회에서 지원이 절실한 노령인구의 자립성과 주체성에 대한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80) 윤택림, 앞의 논문, 2023, 236쪽.

## 참고문헌

### 1. 자료·단행본

-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 김순자,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 한그루, 2016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김영천·이현철 편저, 『질적 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아카데미프레스, 2017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7(3), 2022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1998
-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 유덕상,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
- 유철인, 『여성 구술 생애사와 신세타령』, 민속원, 2022
-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13
-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 정영신, 『한국의 장터 : 발로 뛰며 기록한 전국의 오일장』, 눈빛, 2012
- 제주도, 『제주여성문화』, 제주문화자료총서 8, 2001
- 제주사회연구소, 『제주사회연구 : 제주공동체를 위하여. 창간호』, 1989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 2017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20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 생애사 보고서: 숨비질 배왕 늬주지 아녀』, 2014
-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제주해녀 문화공동체를 엿보다: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8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의 생업과 문화』, 2009
- 조선총독부농상공부 편찬, 『제주도』, 『한국수산지』 (3), 조선총독부, 1910
- 조성윤·이상철·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주영하·전성현·강재석, 『한국의 시장』, 공간미디어, 1996
- 한승철·황용진, 『제주 읍면지역 오일시장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허남춘·허영선·강수경, 『할망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음식 이야기』, 이야기섬,  
2015

## 2. 논문·학술대회 발표문

- 김상옥, [핀란드 아라비안란타 ‘로푸키리’ :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동체 삶] 멋진  
유종의 미를 장식하려는 마지막 질주 노인복지예산 대폭 삭감에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다, 『월간 주민자치』 48호, 2015
- 김영돈, 「제주 해녀의 실상과 의지」, 『비교민속학』 18, 2000
- 김의수, 「한국 사회와 공동체」, 『사회와 철학』, 2001
- 김자경, 「기획특집 지역과 미래」, 『대산농촌』, 2022.
- 김자경,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주도민의 식생활 현황과 먹을거리 의식  
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20집 2호』, 2010.
- 강대훈, 「“곱게 갑서, 다시 오지 맙서”: 제주 성산읍 해녀들의 바다거북 인식  
무속적 조상신앙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 석사학위논문, 2017
- 강경숙, 김준표, 「제주도 지역개발시기 제주여성의 노동과 지위」, 『탐라문화』  
제69호, 2022
- 강경민,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  
촌계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2015
- 강수경, 「제주도 바다밭 지식과 어로 민속 연구 : 제주시 조천읍 사례를 중심  
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23
- 고미, 「제주해녀 출가(出稼)배경과 정착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  
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3
- 고은솔, 정상철,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예술경영연  
구』, 2018
- 고승한, 「제주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변화」, 『제주발전연구』 8, 2004
- 김동섭, 「세화리 오일장에 관한 연구」, 『영주어문』 9, 2005.
- 김영돈, 「제주 해녀의 실상과 의지」, 『비교민속학』 18, 2000
- 김준표, 「제주지역 여성노동의 유형별 비교연구」, 『탐라문화』, 2022
- 노우정,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제주대학교 대

- 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1
- 문경복,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해녀 노동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문순덕, 「제주 여성생활문화사의 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문학과 예술』, 25, 2018
- 민윤숙, 「제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 55호, 2012
- 민성은·최성호·김영천,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권, 2017
- 배민영·김신열, 「사회적 배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지역사회 주민참여가능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 77권 3호』, 2022
- 송원섭·조철기·안중수·이종호, 「‘해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9(1), 2023
- 송원섭,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조우: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019
-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안미정,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제주도 잠수마을의 나잠(裸潛)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2006
- 양경숙, 「제주해녀의 직업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양인실, 「제주해녀 생애사 연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장(장)’ 개념을 적용하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양원홍,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오대민·박중수·조자용·박윤점·박수민·허복구, 「광양지역 오일장에서 산채 자원의 유통 실태 분석」, 『인간식물환경학지』, 2010
- 오창명, 「제주의 고유 개(浦 · 浦口)」, 『제주발전포럼』, 2015
- 유철인,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 제31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 유철인,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제주해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 『비교한국문화인류학』 44-2, 2011
- 유태복, 「濟州市 在來市場의 經營合理化 方案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7
- 유태림, 「구술자료 생산 및 활용 현황과 구술사의 공공성(Publicness)」, 『구술사연구』 14(1), 2023
- 윤수미,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 제주도 무무(巫舞) 비교 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2011
- 이상림, 「지역의 고령화: 사회구조적 전환으로서 고령화」, 『지식의 지평』, (33), 2022
- 이선화,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용선·국승요·정은미·조경출, 「정기시장의 구조와 기능 변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이척희, 노재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법적 대응 방안」, 『산업진흥연구』, 산업진흥원, 2020
- 이희성, 권순호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 이한결, 「어느 해녀 할머니의 역경과 성장에 관한 생애 이야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정금호, 「농촌 오일장의 공간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 동부지역 오일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4), 2011
-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010
- 지은정, 『통합적 체계적 노인 사회활동 만들어야』, 월간공공정책, 2019
- 좌혜경·권미선,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 2009
- 허진, 「在來市場의 業態別 空間構成과 規模에 관한 建築計劃的 研究」,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허남춘,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1호, 2007  
허남춘, 「제주전통음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탐라문화』, 2005

### 3. 신문기사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0910121758191>)  
2009.10.12. (최종 검색일 2023.6.30.)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10009013>)  
2009.3.10. (최종 검색일 2023.6.30.)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0025024>)  
2018.2.20. (최종 검색일 2023.6.30.)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882637#home>)  
1994.5.6. (최종 검색일 2023.6.30.)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268>)  
2022.11.17. (최종 검색일 2023.6.30.)  
제주환경일보(<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571>)  
2021.4.11. (최종 검색일 2023.6.30.)  
충청신문(<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606580>)  
2020.7.22. (최종 검색일 2023.6.30.)

### 4. 인터넷 자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95%A0%EB%A7%9D>)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kr/maps>)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  
두산세계대백과([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  
제주 해녀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jeju.go.kr/haenyeo/index.htm>)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Kkrpub/webzine/2021/11/objective.html>)  
한국민속대백과 사전(<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1016>)

## Abstract

# Significance of *Halmang Badang* and *Halmangjang* Examined through Oral Testimonies of Jeju Haenyeo

Jang, Jae-Hui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a method-based documentation of life history and a study of oral interviews with Jeju haenyeo [professional diving women of Jeju] and elderly Jeju women in *halmangjang* [traditional markets with elderly women merchants] who have earned their livelihoods in the sea and at traditional markets. By researching the narratives of their lives through testimonies by elderly Jeju women, their experiences of labor in *halmang badang* [littoral sea areas zoned exclusively for elderly Jeju haenyeo] and *halmangjang* and their life history are analyzed in this paper, which ends with an examination of the communitarian aspects and implications of *halmang badang* and *halmangjang* and their contemporary valu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Jeju Island was zoned into four regions from April to June in 2023 – north, south, east, and west, and the oral testimonies of the life histories of seven haenyeo *halmang* [a Jeju word for elderly women] were recorded in these four zones, specifically in the Traditional Five-Day Market in Jeju City, Bomok-dong in Seogwipo City, Onpyeong-ri in Seogwipo City, and Gosan-ri in Jeju City.

Based on the interviews of the Jeju haenyeo in *halmang badang*, their labor

experiences and unique communitarian culture were investigated, while the elderly Jeju women's experiences of labor and life,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Jeju's traditional markets, were reviewed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Jeju *halmang* merchants in *halmangjang*.

According to the research, Jeju's unique culture of concern and sharing found in the local practice of *gheseok* [the most skilled haenyeo sharing their catch with the least skilled members], *ban taeughi* [sharing food with neighbors after ancestral rituals are performed], and *sunureum* [exchanging equivalent labor by taking turns between households] are represented in the maritime space of *halmang badang* and the onshore space of *halmangjang*.

Jeju's *halmang badang* and *halmangjang* are places where elderly residents, who often become passive consumers and welfare recipients, actively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by working in production and sales, and, at the same time, community spaces that have been formed by passing down Jeju's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o the contemporary era. Jeju haenyeos' unique practice of considering the weak by designating the sea area closest to the coast in the space perceived as the "sea field" as *halmang badang* for easier *muljil* [haenyeo's diving to catch and collect seafood] has contributed to a horizontal community with equal membership in a natural environment deficient in resources. *Halmangjang* has also valued community spirit by allowing Jeju women to sell produce they grow in their *uyeongpat*, or vegetable gardens.

The Jeju haenyeo community, which has experienced the aging of its members just like other groups in Korea amid the transformation into a super-aged society, fulfills the communal pledges through the practice of *halmang badang* to actively maintain their "sea field" for sustainable fisheries while pursuing coexistence with nature. In *halmangjang*, elderly Jeju women sell local produce of indigenous varieties that have gradually disappeared due to the modernization of farming techniques, while spreading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Jeju's elderly residents who make their livelihoods by working in the sea and the traditional markets live their lives independently and in a self-supported manner, rather than remaining socially isolated or alienated. In contemporary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s often rendered only as filling the roles of consumers and welfare recipients. *Halmang badang* and *halmangjang* provide elderly women with a venue and opportunity for production and selling, enabling them to live an independent and self-supported lives that match Jeju's local ideal image of strong women.

Jeju's *halmang badang* and *halmangjang* demonstrate a virtuous circle where community values are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in modern society. The local community of Jeju has inherited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has valued coexistence and symbiosis.

Keywords: Jeju haenyeo, haenyeo community, *halmang badang*, *halmangjang*, oral testimony, Jeju City Traditional Five-Day Market, traditional market,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super-aged society